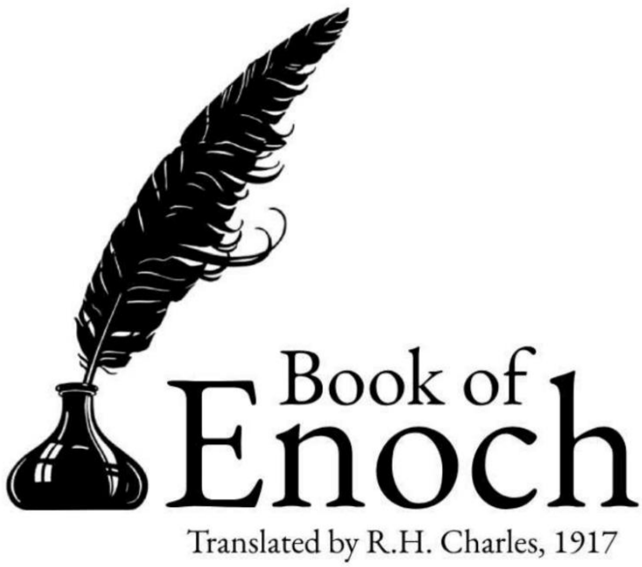


에녹서

제 1 장

1. 에녹의 축복 말씀은, 모든 악인과 불경건한 자들이 제거될 환난의 날에 살아갈 선택받은 자들과 의인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2. 예수께서 비유를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사람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늘에서 거룩하신 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내게 그 환상을 보여주었고, 나는 그들로부터 모든 것을 듣고 내가 본 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올 먼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3. 택함 받은 자들에 관하여 내가 말하고 그들에 대한 비유를 들었으니,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이 그의 처소에서 나오실 것이다.
4.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땅을 밟으시고, 그의 진영에서 나타나시며, 하늘 위의 하늘에서 그의 권능으로 나타나시리라.
5.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파수꾼들은 떨며, 큰 두려움과 떨림이 땅 끝까지 그들을 덮칠 것이다.
6. 높은 산들이 흔들리고, 높은 언덕들이 낮아지며, 불꽃 앞에서 촛농처럼 녹아내릴 것이다.
7. 땅이 완전히 갈라지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멸망하며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8. 그러나 그분은 의인들과 화평을 이루시리라. 택함 받은 자들을 보호하시며 자비를 베푸시리라.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하고 번영하며 복을 받으리라. 그분은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며 그들과 화평을 이루시리라.
9. 보라! 그분께서 수만 명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시어 모든 자를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를 멸하시며 모든 육체가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위와 불경건한 죄인들이 그분께 대하여 말한 모든 악한 말에 대하여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제 2 장

1.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궤도를 바꾸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별들은 모두 제때에 뜨고 지는 것을 보고, 그 정해진 질서를 어기지 말라.
2. 땅을 보라. 그리고 그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라. 그것들이 얼마나 변함없는지, 땅 위의 것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모든 일이 너희에게 나타나는지 보라.
3. 보라, 여름과 겨울이여, 온 땅이 물로 가득 차 있고, 구름과 이슬과 비가 그 위에 덮여 있도다.

제 3 장

겨울이 되면 모든 나무들이 시들어 잎을 다 떨어뜨린 것처럼 보이지만, 14 그루의 나무는 예외적으로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새 잎이 나올 때까지 2~3 년 동안 묵은 잎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제 4 장

또 여름날을 살펴보아라. 태양이 땅 위에 높이 떠 있는 것을. 너희는 태양의 열기 때문에 그늘과 피난처를 찾고, 땅 또한 점점 더 뜨거워져서 그 열기 때문에 땅이나 바위를 밟을 수 없게 된다.

제 5 장

1. 나무들이 푸른 잎으로 뒤덮이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분의 모든 창조물을 주의 깊게 살피고, 영원히 살아 계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그것들을 만드셨는지 깨달으라.
2.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일은 이와 같이 해마다 영원히 계속되며, 그들이 그분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일과 그 일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3. 보십시오, 바다와 강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계명대로 자기들의 임무를 완수하며,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4. 그러나 너희는 확고하지 아니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돌아서서 더러운 입으로 그분의 위대하심을 거슬러 교만하고 거친 말을 하였도다. 오,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너희는 평화를 찾지 못할 것이다.
5.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날들을 저주받을 것이며, 너희 생명의 해들은 사라질 것이며, 너희 멸망의 해들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더욱 많아질 것이며, 너희는 자비를 찾지 못할 것이다.
6. 그 날에 너희는 너희 이름을 모든 의인에게 영원한 저주거리로 만들 것이며, 너희로 말미암아 저주하는 자들은 모두 저주할 것이며, 모든 죄인과 불경건한 자들은 너희로 말미암아 저주할 것이니, 너희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자들은 기뻐할 것이며, 죄 사함이 있을 것이며, 모든 자비와 평화와 인내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구원과 아름다운

빛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모든 죄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을 것이며, 너희 모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7.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빛과 기쁨과 평화가 있을 것이며, 그들은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8 그때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지혜가 주어질 것이며, 그들은 모두 살 것이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불경건이나 교만으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겸손할 것이다.
9 그들은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 것이며, 평생토록 죄를 짓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나 분노로 죽지 않을 것이며, 수명을 다할 것이며, 평화 가운데서 그들의 생명이 길어지고, 기쁨의 해가 많아질 것이며, 영원한 기쁨과 평화 가운데서 평생토록 살 것이다.

제 6 장

1. 사람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자 그 시대에 아름답고 매력적인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2. 하늘의 자녀들인 천사들이 그들을 보고 음욕을 품고 서로 말하기를 '자, 우리도 사람의 자녀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여 자녀를 낳자' 하였더라.
3. 그들의 지도자인 셈자자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이 일을 행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나 혼자 큰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4. 그들이 모두 그에게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맹세하고, 서로 저주를 퍼부어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실행하기로 맹세합시다.'
5. 그러자 그들은 모두 함께 맹세하고 서로 저주를 퍼부으며 맹세를 굳게 맺었다.
6. 그들은 모두 이백 명이었는데, 야렛 시대에 헤르몬 산 정상에 내려와서 그곳을 헤르몬 산이라 불렀다. 이는 그들이 그 산에서 서로 저주를 퍼붓고 맹세했기 때문이다.
7.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Sêmîazâz, 그들의 지도자, Arâkîba, Râmêêl, Kôkabîêl, Tâmîêl, Râmîêl, Dânêl, êzêqêêl, Barâqîjâl, Asâêl, Armârôs, Batârêl, Anânêl, Zaqîêl, Samsâpêl, Satarêl, Tûrêl, Jômjâêl, Sariêl.
8. 이들은 십인대 대장들입니다.

제 7 장

1.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그들과 함께 아내를 맞이했는데, 각자 한 명씩 선택하여 아내들과 동침하고 음란한 행위를 저질렀으며, 그들에게 주술과 마법, 뿌리 자르는 법을 가르치고 식물에 대해 알게 했다.
2. 그들이 임신하여 키가 삼천 엘에 달하는 거인들을 낳았습니다.
3. 인간이 이룩한 모든 것을 소비한 자들. 그리고 인간이 더 이상 그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되었을 때,
4. 거인들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인류를 잡아먹었다.
5. 그들은 새와 짐승과 파충류와 물고기에게 죄를 짓기 시작했고, 서로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습니다.
6. 그러자 땅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제 8 장

1. 아자젤은 사람들에게 칼과 단검, 방패와 갑옷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고, 땅에서 나는 금속과 그것을 가공하는 기술, 팔찌와 장신구, 안티몬의 사용법, 눈꺼풀을 아름답게 꾸미는 법, 온갖 값비싼 보석과 모든 염료를 알려주었다.
2. 그리하여 불경건이 만연하고 그들은 음행을 저지르며 미혹되어 모든 행실이 타락하였다. 셈자자는 주술과 뿌리 자르기를 가르쳤고, 아마로스는 주술을 푸는 법을, 바라키잘은 점성술을, 코카벨은 별자리를, 에제키엘은 구름에 대한 지식을, 아라키엘은 땅의 징조를, 샴시엘은 태양의 징조를, 사리엘은 달의 궤도를 가르쳤다. 사람들이 멸망해 가자 그들은 울부짖었고,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제 9 장

1. 그러자 미가엘과 우리엘과 라파엘과 가브리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아 보니 땅 위에 많은 피가 흘려지고 온갖 불법이 만연해 있었다.
2.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거주자가 없는 땅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늘 문까지 이르도록 부르짖는도다.' 하였습니다.
3. 이제 하늘의 거룩하신 이들이시여, 인간의 영혼들이 당신들께 간청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소서."
4. 그들이 영원하신 주께 아뢰되 '만왕의 왕, 신들의 하나님, 만왕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주의 영광의 보좌가 모든 세대에 걸쳐 서 있고, 주의 이름이 모든 시대에 걸쳐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찬송받으리이다!'
5.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만물이 주님 앞에 드러나 있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므로 아무것도 주님께 숨길 수 없습니다.
6. 너는 아자젤이 행한 일을 보았다. 그는 땅에서 온갖 불의를 가르쳤고, 하늘에 간직되어 있던 영원한 비밀들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그 비밀들을 배우려고 애썼다.
7. 그리고 주님께서는 셈자자에게 그의 동료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8. 그들은 땅 위의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여자들과 동침하여 자신들을 더럽히고 온갖 죄악을 그들에게 드러냈습니다.
9. 여인들이 거인들을 낳았으므로 온 땅이 피와 불의로 가득 찼도다.
10. 보십시오, 이제 죽은 자들의 영혼이 하늘 문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애곡은 하늘 문에까지 이르렀고, 땅에서 행해지는 불법적인 행위들 때문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11. 주님께서는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시고, 이러한 일들을 보시며, 그것들을 용납하시지만, 이러한 일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 10 장

1. 그때 지극히 높으신 분,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며 우리엘을 라멕의 아들에게 보내시어 그에게 이르시되
2. 노아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숨으라!” 하고, 그에게 다가올 종말, 곧 온 땅이 멸망할 것이며, 홍수가 온 땅을 덮쳐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할 것을 알려주어라.
3. 그리고 이제 그에게 가르쳐서 그가 무사히 탈출하고 그의 자손이 세상 모든 세대에 걸쳐 보존되도록 하십시오.'
4.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라파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자젤의 손발을 묶어 어둠 속으로 던져 넣어라. 그리고 두다엘에 있는 사막에 구멍을 내어 그를 그 안에 던져 넣어라.'
5. 그리고 그 위에 거칠고 뾰족한 바위를 놓고 그를 어둠으로 덮어 영원히 그곳에 머물게 하며 그의 얼굴을 가려 빛을 보지 못하게 하소서.
6. 그리고 큰 심판의 날에 그는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이 타락시킨 땅을 치유하고, 땅의 치유를 선포하여 전염병을 고치고, 파수꾼들이 드러내고 그들의 아들들에게 가르친 모든 비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멸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8. 온 땅이 아자젤이 가르친 행위들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으니, 모든 죄악을 그에게 돌리라.
9. 주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생아와 타락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식들을 대적하여 나아가라. 음행하는 자식들과 파수꾼의 자식들을 사람들 가운데서 멸절시키고, 그들을 내쫓아 서로 싸우게 하여 죽게 하라. 그들은 장수하지 못할 것이다.'
10. 그리고 그들, 곧 그들의 조상들이 너에게 하는 어떤 요청도 그들을 대신하여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영생을 누리기를 바라며, 그들 각자가 오백 년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11. 그리고 주님께서 미가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셈야자와 그의 동료들을 결박하라. 그들은 여자들과 결합하여 온갖 부정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12. 그들의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사랑하는 자들의 멸망을 목격할 때에, 그들을 땅의 골짜기에 칠십 대 동안 결박하여 그들의 심판 날과 그들의 멸망의 날, 곧 영원무궁한 심판이 완성될 때까지 붙잡아 두라.
13. 그 날에 그들은 불의 심연으로 끌려가 영원히 갇히는 고통과 감옥에 처해질 것이다.
14. 그리고 누구든지 정죄받아 멸망당하는 자는 그때부터 모든 세대가 끝날 때까지 그들과 함께 결박될 것이다.
15. 그리고 악한 자들의 영과 파수꾼들의 자식들을 모두 멸하라. 그들이 인류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이다.
16. 땅에서 모든 악을 없애고 모든 악한 행위를 그치게 하소서. 의와 진리의 나무가 나타나게 하소서. 그것이 복이 될 것이며, 의와 진리의 행위는 진리와 기쁨 가운데 영원토록 심어질 것입니다.
17 그때에 모든 의인은 구원을 받고, 수많은 자녀를 낳을 때까지 살며, 젊은 시절과 노년 시절을 평화롭게 보낼 것이다.
18 그때에 온 땅은 의롭게 경작되고 모든 곳에 나무가 심겨져 복이 충만할 것이다.
19. 그 땅에는 모든 좋은 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도 심으라. 그 땅에 심은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풍성히 맺을 것이요, 그 씨앗 한 되로는 천 방울의 포도주를 맺을 것이요, 올리브 한 되로는 열 번 짜서 기름을 만들 것이니라.
20. 그리고 땅을 모든 압제와 모든 불의와 모든 죄와 모든 불경건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땅 위에 행해지는 모든 더러움을 땅에서 없애 버리소서.
21.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며, 모든 나라가 나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모든 사람이 나를 숭배할 것이다. 땅은 모든 더러움과 모든 죄와 모든 형벌과 모든 고통에서 깨끗해질 것이며, 나는 대대로 영원히 다시는 그것들을 그 위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제 11 장

1. 그 날에 내가 하늘에 있는 복의 창고를 열어 땅 위에 내려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 위에 복을 내려 주리라.
2. 진리와 평화는 세상 모든 날과 모든 세대에 걸쳐 함께할 것입니다.

제 12 장

1. 이 일들이 있기 전에 에녹은 숨어 있었고, 사람들의 자녀들 중 아무도 그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2. 그리고 그의 활동은 파수꾼들과 관련이 있었고, 그의 날들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했습니다.
3. 그리고 나 에녹은 위엄의 주님이시며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는데, 보십시오! 파수꾼들이 나를 서기관 에녹이라 부르며 내게 말했습니다.
4. '의의 서기관 에녹아, 가서 하늘의 파수꾼들에게 선포하라. 그들은 높은 하늘, 거룩하고 영원한 곳을 떠나 여자들과 함께 더럽혀졌고, 땅의 자식들처럼 행하여 아내를 취하였다. "너희는 땅에 큰 파괴를 초래하였다."'
5. 그리하면 너희는 평화도 죄 사함도 얻지 못할 것이요, 그들이 자기 자녀를 기뻐하는 한,
6. 그들은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자녀들의 멸망을 슬퍼하며 영원토록 간구하겠지만, 너희는 자비와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제 13 장

1. 그리고 에녹이 가서 말했습니다. '아자젤아, 너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너를 감옥에 가두는 엄중한 판결이 내려졌다.'
2. 네가 가르친 불의와 네가 사람들에게 보여준 모든 불경건과 불의와 죄악의 행위 때문에 너는 관용을 받지도,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3. 그때 내가 가서 그들 모두에게 한꺼번에 말하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며 떨림에 사로잡혔다.
4. 그러자 그들은 내게 간청하여 그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청원서를 작성하고, 하늘의 주님 앞에서 그들의 청원서를 읽어 달라고 했습니다.
5. 그때부터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부끄러워 그분과 말도 나눌 수 없었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올려다볼 수도 없었다.
6. 그런 다음 나는 그들의 간청과 기도를 적었는데, 그들의 영혼과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기록하고, 그들이 용서받고 장수하기를 바라는 그들의 소원을 적었습니다.
7. 그리고 나는 가서 헤르몬 산 서쪽 남쪽에 있는 단 지파 땅의 단 강가에 앉아 그들의 청원을 읽다가 잠이 들었다.
8. 보라, 내게 꿈이 임하여 환상이 내게 나타나 징벌의 환상을 보았는데, 한 음성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이 일을 하늘의 아들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꾸짖으라 하였더라.
9. 내가 깨어나 그들에게 이르러 보니, 그들은 모두 레바논과 세네세르 사이에 있는 아벨스자일에서 얼굴을 가리고 모여 울고 있었다.
10. 그리고 나는 그들 앞에서 내가 꿈에서 본 모든 환상을 이야기하고, 의로운 말씀을 전하며 하늘의 파수꾼들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제 14 장

1. 의의 말씀과, 그 환상 속에서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의 명령에 따라 영원한 파수꾼들이 내린 질책이 담긴 책.
2. 나는 꿈속에서 내가 지금 살로 된 혀와 입의 숨결로 말할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위대하신 분께서 사람들에게 대화하고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3. 그분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혜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 나 또한 창조하시고 하늘의 자녀들인 파수꾼들을 꾸짖을 능력을 주셨다.
4. 내가 너의 간청을 기록하였더니, 내 환상 속에서 너의 간청은 영원토록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너에 대한 심판이 최종적으로 내려졌음이 드러났다. 참으로 너의 간청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5. 이제부터 너희는 영원토록 하늘에 오르지 못할 것이며, 땅의 사슬에 묶여 세상 모든 날 동안 살게 될 것이다.
6. 그리고 너희는 사랑하는 아들들이 멸망하는 것을 먼저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을 기뻐하지 못할 것이요, 그들은 너희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7. 너희가 그들을 위해 간청해도, 너희 자신의 간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비록 너희가 울며 기도하고 내가 쓴 글에 있는 모든 말을 다 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8. 그리고 내게 이와 같은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보십시오, 그 환상 속에서 구름이 나를 부르고 안개가 나를 불러냈으며 별들의 움직임과 번개가 나를 재촉하고 빠르게 움직이게 하였고, 그 환상 속의 바람이 나를 날게 하고 위로 들어 올려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9. 그리고 나는 안으로 들어가 수정으로 만들어지고 불꽃으로 둘러싸인 벽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기 시작했다.
10. 그리고 나는 불꽃 속으로 들어가 수정으로 지어진 큰 집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 집의 벽은 수정으로 만든 모자이크 바닥 같았고, 기초도 수정으로 되어 있었다.
11. 그 천장은 별과 번개의 궤적 같았고, 그 사이에는 불타는 그룹들이 있었으며, 그들의 하늘은 물처럼 맑았다.
12. 활활 타오르는 불이 성벽을 둘러쌌고, 성문은 불길에 휩싸였다.
13. 내가 그 집에 들어가 보니, 그곳은 불처럼 뜨겁고 얼음처럼 차가웠으며, 삶의 즐거움이 전혀 없었고, 두려움이 나를 덮쳤으며, 떨림이 나를 사로잡았다.
14. 그러자 나는 떨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15.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보라, 이전 집보다 더 큰 두 번째 집이 있었고, 문 전체가 내 앞에 활짝 열려 있었으며, 불꽃으로 지어졌더라.
16. 그리고 모든 면에서 그것은 화려함과 웅장함, 그리고 규모 면에서 너무나 뛰어났기에, 그 화려함과 규모를 여러분께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17. 그 바닥은 불이었고, 그 위에는 번개와 별들의 궤적이 있었으며, 천장도 불타는 불이었다.
18. 내가 보니 그 안에 높은 보좌가 있는데 그 모양은 수정 같고 그 바퀴는 빛나는 해 같으며 거기에 그룹들이 있더라.
19. 그리고 보좌 아래에서 불타는 불꽃이 솟아나와 내가 그것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 그리고 그 큰 영광이 그 위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해보다 더 밝게 빛났고 어떤 눈보다도 더 희었습니다.
21. 그 위엄과 영광 때문에 천사들 중 누구도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었고, 인간의 눈으로도 그분을 볼 수 없었다.
22. 타오르는 불이 그분을 둘러쌌고, 큰 불이 그분 앞에 서 있었으며, 주위의 어떤 것도 그분께 가까이 올 수 없었습니다. 만만 명이 그분 앞에 서 있었지만, 그분은 아무런 조언자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23. 그리고 그분 곁에 있던 가장 거룩한 자들은 밤에도 그분을 떠나지 않았고, 그분 곁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24. 그때까지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떨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친히 입으로 나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아, 이리로 와서 내 말을 들어라.'
25. 그때 거룩한 자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를 깨우고 나를 일으켜 문으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제 15 장

1.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에녹아, 의로운 사람, 의의 서기관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리로 와서 내 음성을 들으라.'

2. 그리고 가서 너를 보내어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게 한 하늘의 파수꾼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해야지, 사람들이 너희를 위해 중보해서는 안 된다."
3. 어찌하여 너희는 높고 거룩하고 영원한 하늘을 버리고 여자들과 동침하여 사람의 딸들과 더럽히고 아내를 맞아들여 땅의 자식들처럼 행하여 거인들을 아들로 낳았느냐?
4. 너희는 거룩하고 영적인 자로서 영생을 누리며 살았으나, 여자의 피로 자신을 더럽히고 육신의 피로 자녀를 낳았으며, 사람의 자녀처럼 육신과 피를 탐하여 죽어 멸망하는 자들이 그러하듯이 살과 피를 탐하였느니라.
5.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아내를 주어 그들이 임신하여 자녀를 낳게 하였으니, 이로써 그들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6. 그러나 여러분은 이전에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세상 모든 세대에 걸쳐 불멸할 존재였습니다.
7.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위해 아내를 정해 주지 않았다. 하늘에 속한 영들은 하늘에 거하기 때문이다.
8. 이제 영과 육으로 태어난 거인들은 땅 위에서 악한 영이라 불릴 것이며, 땅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9. 악령들은 그들의 몸에서 나왔으니, 이는 그들이 사람에게서 태어났고 거룩한 파수꾼들에게서 그들의 시작과 근원이 나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땅에서 악령이 될 것이며, 악령이라 불릴 것이다.
10. 하늘에 속한 영들은 하늘에 거할 것이요, 땅에서 태어난 땅에 속한 영들은 땅에 거할 것이다.
11. 거인들의 영들은 괴롭히고, 억압하고, 파괴하고, 공격하고, 싸우고, 땅을 황폐하게 하며,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지 않고도 굶주리고 목마르며,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영들은 사람의 자녀들과 여자들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 16 장

1. 거인들의 학살과 파괴와 죽음의 날부터, 그들의 육체에서 나온 영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시키리라. 이와 같이 그들은 종말의 날, 곧 세상이 완성되는 큰 심판의 날까지 멸망시키리라. 파수꾼들과 불경한 자들은 완전히 멸망하리라.
2. 이제 너를 그들을 위해 중보하도록 보낸 파수꾼들, 곧 전에 하늘에 있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3. "너희는 하늘에 있었으나 모든 비밀이 너희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너희는 무익한 것들을 알았으며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그것들을 여자들에게 알려주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가 땅에서 많은 악을 행하는도다."
4.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평화가 없다” 하라.

제 17 장

1. 그리고 그들은 나를 붙잡아 어떤 곳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불타는 불과 같았고, 원할 때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2. 그리고 그들은 나를 어둠의 장소로, 산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산으로 데려갔다.
3. 그리고 내가 보니 광명체들의 거처와 별들의 보고와 천둥소리가 있는 곳과 가장 깊은 곳에 불타는 활과 화살과 화살통, 불타는 칼과 모든 번개가 있더라.
4. 그리고 그들은 나를 생수의 길로, 해가 지는 모든 곳을 비추는 서쪽의 불길로 데려갔다.
5. 그리고 나는 불의 강에 이르렀는데, 그 강에서는 불이 물처럼 흘러 서쪽의 큰 바다로 흘러들어갔다.
6. 내가 큰 강들을 보고 큰 강에 이르러 큰 어둠에 이르렀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갔다.
7. 나는 겨울의 어둠 속 산들과 깊은 곳의 모든 물이 흘러나오는 곳을 보았다.
8. 내가 땅의 모든 강 어귀와 깊은 강의 어귀를 보았다.

제 18 장

1. 내가 보니 모든 바람의 보고가 있더라. 내가 보니 그분께서 그것들로 온 창조물과 땅의 견고한 기초를 만드셨더라.
2. 내가 땅의 모퉁잇돌을 보았고, 땅과 하늘의 궁창을 떠받치는 네 바람을 보았다.
3. 그리고 내가 보니 바람이 하늘의 궁창에 펼쳐져 하늘과 땅 사이에 자리 잡고 있더라. 이것들이 하늘의 기둥이로다.
4. 나는 하늘의 바람이 방향을 바꾸어 해의 둘레와 모든 별들을 저물게 하는 것을 보았다.
5. 내가 보니 땅 위의 바람이 구름을 실어 나르는 것이요, 천사들의 길이요, 땅 끝에서 하늘의 궁창이 보이더라.
6. 그리고 내가 나아가 보니 밤낮으로 불타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웅장한 돌산이 일곱 개 있고, 동쪽으로 세 개, 남쪽으로 세 개가 있다.
7. 그리고 동쪽을 향한 것들은 하나는 색석으로, 하나는 진주로, 하나는 자수정으로 만들어졌고, 남쪽을 향한 것들은 붉은 돌로 만들어졌다.
8. 그러나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처럼 하늘에 닿을 듯했고, 그 보좌는 백옥으로 만들어졌으며, 꼭대기는 사파이어로 되어 있었다.
9. 그리고 나는 불타는 불을 보았습니다. 이 산 너머에는 큰 땅의 끝인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하늘이 완성되었습니다.
10. 그리고 나는 깊은 심연을 보았는데, 그곳에는 하늘의 불기둥들이 있었고, 그 사이로 높이와 깊이 모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불기둥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11. 그리고 그 심연 너머에 내가 본 것은 하늘의 궁창도 없고 땅도 굳건히 서 있지 않은 곳이었다. 그곳에는 물도 없고 새도 없었으며, 황량하고 끔찍한 곳이었다.

12. 나는 거기서 불타는 큰 산과 같은 일곱 별을 보았고, 그것들에 관하여 묻자,
13.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곳은 천지와 하늘의 끝이요, 별들과 하늘의 군대가 갇힌 감옥이 되었습니다.'
14. 그리고 불 위를 굴러다니는 별들은 처음 떠오를 때 주님의 계명을 어긴 자들이니, 정해진 때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15. 그리고 그분은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의 죄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즉 만 년 동안 그들을 결박하셨습니다.

제 19 장

1. 우리엘이 내게 이르되 '여인과 결탁한 천사들이 여기에 서 있을 것이다. 그들의 영은 여러 가지 형체를 취하여 인류를 더럽히고 악마를 신으로 숭배하게 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들은 심판의 날까지 여기에서 있을 것이며, 그 날에 심판을 받아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하였느니라.
2. 그리고 길을 잃은 천사들의 여자들도 세이렌이 될 것이다.'
3. 나 에녹만이 만물의 종말을 보는 환상을 보았으니, 아무도 내가 본 것과 같이 보지 못할 것이다.

제 20 장

1. 그리고 이것들은 지켜보는 거룩한 천사들의 이름입니다.
2. 우리엘은 거룩한 천사들 중 하나로, 세상과 타르타로스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3. 라파엘은 거룩한 천사 중 하나로, 인간의 영혼을 다스리는 천사입니다.
4. 라구엘은 빛의 세계에 복수하는 성스러운 천사 중 하나입니다.
5. 미가엘은 거룩한 천사들 중 하나로, 인류의 가장 선한 부분과 혼돈을 다스리는 천사입니다.
6. 사라켈은 거룩한 천사 중 하나로, 영들 가운데서 죄를 짓는 자들을 다스리는 천사이다.
7. 가브리엘은 거룩한 천사들 중 하나로, 낙원과 뱀과 케루빔을 다스리는 천사입니다.
8. 레미엘은 하나님께서 부활하는 자들을 다스리도록 세우신 거룩한 천사 중 하나입니다.

제 21 장

1. 그리고 나는 상황이 혼란스러운 곳으로 향했다.
2. 그리고 나는 거기서 끔찍한 것을 보았습니다. 위에는 하늘도 없고, 굳건히 세워진 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혼돈스럽고 끔찍한 곳만 보였습니다.
3. 그리고 거기서 나는 하늘의 일곱 별이 그 안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큰 산처럼 불타고 있었다.
4. 그러자 내가 말했습니다. '저들은 무슨 죄로 결박되었으며, 무슨 이유로 이곳에 던져졌습니까?'
5. 그때 나와 함께 있던 거룩한 천사들 중 하나이며 그들의 우두머리인 우리엘이 말했습니다. '에녹아, 어찌하여 묻느냐? 어찌하여 진리를 갈망하느냐?'
6. 이들은 하늘의 별들 중 수만큼 많은 자들이며, 주님의 계명을 어긴 자들로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정해진 만 년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곳에 묶여 있을 것이다.
7. 그리고 나는 거기서 또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곳은 이전 곳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곳이었다. 나는 거기서 끔찍한 광경을 보았다. 거기에는 거대한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곳은 심연까지 갈라져 있었으며, 거대한 불기둥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 불길의 범위나 규모를 볼 수도, 짐작할 수도 없었다.
8. 그러자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 곳인가!'
9. 그때 나와 함께 있던 거룩한 천사 중 하나인 우리엘이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에녹아, 어찌하여 이토록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하니, 내가 대답하노라, '이 무서운 곳과 고통의 광경 때문입니다.' 하였더라.
10.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천사들의 감옥이니, 그들은 여기에 영원히 갇힐 것이다.'

제 22 장

1. 그리고 나는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가 서쪽으로 또 다른 크고 높은 바위산을 보여주었다.
2. 그리고 그 안에는 깊고 넓고 매우 매끄러운 네 개의 움푹 들어간 곳이 있었다. 그 움푹 들어간 곳들은 얼마나 매끄럽고 깊고 어두운지.
3. 그때 나와 함께 있던 거룩한 천사 중 하나인 라파엘이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4. '이러한 빈 공간들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이 그곳에 모이도록,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의 영혼이 이곳에 모이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들은 그들이 심판의 날과 정해진 기간, 곧 큰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5. 내가 보니 죽은 사람들의 영들이 하늘에 이르러 부르짖더라.
6. 그때 나는 나와 함께 있던 천사 라파엘에게 물었습니다. '이 영, 곧 목소리를 내어 간청하는 영은 누구의 것입니까?'
7. 그러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은 가인이 죽인 아벨에게서 나온 영이니, 그의 자손이 땅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사람들의 자손 중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를 대적하여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하였더라.
8. 그때 나는 그것에 관하여, 그리고 모든 빈 공간에 관하여 이렇게 물었다. '어찌하여 하나가 다른 하나와 떨어져 있는가?'
9.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셋은 죽은 자들의 영을 나누기 위하여 만들어졌느니라 의인들의 영을 위하여도 이와 같이 나뉘어졌으니 그 안에는 맑은 샘물과 같으니라

10.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죄인들이 죽어 땅에 묻혔을 때를 위해 마련된 것이며, 그들은 살아생전에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11. 그들의 영혼은 심판과 형벌과 고통의 큰 날이 올 때까지 이 큰 고통 속에 따로 떨어져 있을 것이며, 영원히 저주하는 자들의 영혼에 대한 보응과 형벌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 그분은 그들을 영원히 결박하실 것이다.
12. 그리고 죄인들의 시대에 죽임을 당했을 때, 자기들의 멸망에 대해 간청하고 드러내는 자들의 영들도 이와 같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13. 이러한 것들은 의롭지 못하고 죄인이었던 사람들, 범죄에 가득 찬 사람들, 그리고 범죄자들의 영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들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영은 심판 날에 죽임을 당하지도 않고 다시 살아나지도 않을 것이다.
14. 그때 나는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나의 주님, 의로우신 주님, 찬양받으소서.'

제 23 장

1. 거기서 나는 땅끝 서쪽의 다른 곳으로 갔다.
2. 그리고 내가 보니 불이 쉬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데, 밤낮으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타오르더라.
3. 그리고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쉬지 않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4. 그때 나와 함께 있던 거룩한 천사 중 하나인 라구엘이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본 이 불길은 하늘의 모든 별들을 박해하는 서쪽의 불이다.'

제 24 장

1. 그리고 거기서 나는 땅의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분께서 내게 밤낮으로 불타는 산맥을 보여주셨습니다.
2. 그리고 내가 그 너머로 가서 보니 일곱 개의 웅장한 산이 있었는데,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 돌들은 웅장하고 아름다웠으며, 전체적으로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에 고운 외관을 지니고 있었다. 세 산은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다른 산 위에 세워져 있었고, 세 산은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역시 하나는 다른 산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깊고 험준한 골짜기들이 있었는데, 그 골짜기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3. 그리고 일곱 번째 산은 이 산들 가운데에 있었는데, 그 높이가 다른 산들보다 훨씬 높아서 마치 보좌처럼 보였고, 향기로운 나무들이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다.
4. 그리고 그 나무들 가운데 내가 전에 맡아본 적 없는 향기를 지닌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들 중에도, 다른 어떤 나무도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 향기는 모든 향기를 능가했고, 그 잎과 꽃과 나무는 영원히 시들지 않았으며, 그 열매는 아름다웠고, 야자나무의 대추야자와 같았습니다.
5. 그러자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로운가! 잎사귀도 예쁘고 꽃도 참 아름답구나!'
6. 그러자 나와 함께 있던 거룩하고 존귀한 천사 중 하나이며 그들의 지도자인 미가엘이 대답했습니다.

제 25 장

1. 그러자 그가 내게 이르되 '에녹아, 어찌하여 내게 그 나무의 향기에 관하여 묻느냐? 또 어찌하여 진리를 알고자 하느냐?'
2. 그러자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싶지만, 특히 이 나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3.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본 이 높은 산은 그 꼭대기가 하나님의 보좌와 같으니 곧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 영광의 주, 영원한 왕께서 앉으실 보좌이니라. 그분께서 선하심으로 땅을 찾아오실 때에 그러하리라.
4. 그리고 이 향기로운 나무는 심판의 날까지 어떤 인간도 만질 수 없다. 그때 그분은 모든 것에 복수하시고 모든 것을 영원히 소멸시키실 것이다. 그때 이 나무는 의롭고 거룩한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5. 그 열매는 택함 받은 자들의 양식이 될 것이며, 거룩한 곳, 곧 영원하신 왕이신 주님의 성전에 옮겨 심어질 것이다.
6 그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며 거룩한 곳에 들어갈 것이요 그 향기가 그들의 뼈에 배어들 것이며 그들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니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것과 같이 살 것이며 그들의 날에 슬픔이나 역병이나 고통이나 재앙이 그들을 덮치지 않을 것이다.
7. 그러므로 나는 영광의 하나님, 영원하신 왕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의인들을 위하여 이러한 것들을 예비하셨고, 그것들을 창조하셨으며,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 26 장

1.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땅의 중간으로 가서, 가지가 갈라진 나무에서 나와 꽃을 피우는 나무들이 있는 복된 곳을 보았습니다.
2. 그리고 거기서 나는 거룩한 산을 보았는데, 그 산의 동쪽 아래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물은 남쪽으로 흘러갔다.
3. 그리고 나는 동쪽으로 이 산보다 더 높은 산을 보았는데, 그 산과 산 사이에는 깊고 좁은 골짜기가 있었고, 그 골짜기 아래로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4. 그리고 그 서쪽에는 이전 산보다 낮고 높이가 작은 또 다른 산이 있었고, 그 산들 사이에는 깊고 마른 골짜기가 있었으며, 세 산의 끝자락에도 또 다른 깊고 마른 골짜기가 있었다.
5. 그리고 모든 골짜기는 깊고 좁았으며, 단단한 바위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곳에는 나무가 심겨 있지 않았다.

6. 그리고 나는 바위들을 보고 감탄했고, 골짜기를 보고 감탄했으며, 참으로 크게 감탄했습니다.

제 27 장

1. 그러자 내가 말했다. '나무로 가득 찬 이 축복받은 땅과 그 사이에 있는 이 저주받은 골짜기는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는 것인가?'
2. 그때 나와 함께 있던 거룩한 천사 중 하나인 우리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저주받은 골짜기는 영원히 저주받은 자들을 위한 곳이니라. 주를 거슬러 입술로 무례한 말을 하고 주의 영광을 모독하는 자들이 다 여기에 모일 것이요, 그들이 여기에 모여 심판을 받을 곳이니라.
3. 마지막 날에는 의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의로운 심판이 영원히 그들 위에 임할 것이며, 거기서 자비로운 자들은 영광의 주님, 영원한 왕을 찬양할 것이다.
4. 이전 사람들에 대한 심판 날에 그들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신 몫을 정해 주신 자비에 대해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5. 그런 다음 나는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을 영광스럽게 찬미했습니다.

제 28 장

1. 그리고 거기서 나는 동쪽으로 향하여 사막 산맥 한가운데로 들어갔는데, 거기 황무지가 보였고 나무와 풀이 무성했다.
2. 그러자 위에서 물이 솟구쳐 나왔다.
3. 마치 북서쪽으로 흐르는 풍부한 물줄기처럼 맹렬하게 몰아치면서 사방에서 구름과 이슬이 피어올랐다.

제 29 장

1. 그리고 나서 나는 사막의 다른 곳으로 가서 이 산맥의 동쪽으로 다가갔다.
2. 그리고 거기서 나는 유향과 몰약 향기를 내뿜는 향기로운 나무들을 보았는데, 그 나무들은 아몬드 나무와도 비슷했습니다.

제 30 장

1. 그리고 그곳을 지나 동쪽으로 멀리 나아가니 물이 가득한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2. 그리고 거기에는 유향나무와 같은 향기로운 나무 색깔을 띤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3. 그리고 그 골짜기 비탈에는 향기로운 계피가 피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을 지나 동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제 31 장

1. 그리고 내가 보니 다른 산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나무들이 우거져 있으며 거기서 꿀이 흘러나오는데 그 꿀의 이름은 사라라와 갈바눔이라 한다.
2. 그리고 이 산들 너머로 나는 땅 끝 동쪽에 또 다른 산을 보았는데, 그 산에는 알로에 나무들이 있었고, 모든 나무에는 아몬드 나무와 같은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3. 그리고 그것을 태우면 어떤 향기로운 냄새보다도 더 달콤한 냄새가 났다.

제 32 장

1. 그리고 이러한 향기로운 냄새를 맡은 후, 북쪽 산 너머를 바라보니 귀한 나드나무와 향기로운 나무, 계피나무와 후추나무가 가득한 일곱 산이 보였습니다.
2. 그리고 거기서 나는 이 모든 산들의 봉우리를 넘어 땅의 동쪽 멀리까지 나아가 에리트라해를 건너 멀리 떠나 조티엘 천사를 지나갔다.
3. 내가 의의 동산에 이르러 보니, 그 나무들 너머에 크고 향기로운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었고, 그 나무들은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웠으며, 지혜의 나무도 있었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큰 지혜를 얻게 되더라.
4. 그 나무는 높이가 전나무 같고, 잎은 캐롭나무 잎과 같으며, 열매는 포도송이처럼 아름답고, 그 향기는 멀리까지 퍼진다.
5. 그러자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는가!'
6. 그때 나와 함께 있던 거룩한 천사 라파엘이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은 지혜의 나무이니, 너의 늙은 아버지와 너의 나이 드신 어머니가 너보다 먼저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지혜를 얻고 눈이 열려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느니라.'

제 33 장

1. 그리고 거기서 내가 땅 끝까지 가서 큰 짐승들을 보았는데, 그 모양과 아름다움과 울음소리가 모두 달랐습니다.
2. 그리고 그 짐승들의 동쪽으로 내가 보니, 하늘이 놓인 땅의 끝과 하늘의 문들이 열려 있었다.
3. 그리고 나는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았고, 그 별들이 나오는 문들을 세어 보았으며, 나와 함께 있던 거룩한 천사 우리엘이 내게 보여준 대로 각 별의 모든 출구를 그 수와 이름, 궤도와 위치, 시기와 달에 따라 하나하나 기록하였다.
4. 그분은 모든 것을 내게 보여 주시고 기록해 주셨으며, 그들의 이름과 율법과 회사까지도 기록해 주셨습니다.

제 34 장

1. 그리고 거기서 나는 북쪽으로 향하여 땅 끝까지 갔는데, 거기서 나는 온 땅 끝에 크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보았습니다.
2. 그리고 나는 하늘에 세 개의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문들 각각으로 북풍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불면 추위와 우박, 서리, 눈, 이슬, 비가 내립니다.

3. 한 문으로는 좋은 바람을 불어넣지만, 다른 두 문으로는 땅에 재앙과 고통을 가져오며, 폭력적으로 바람을 불어넣는다.

제 35 장

1. 그리고 거기서 나는 서쪽으로 향하여 땅 끝까지 갔는데, 거기서 동쪽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하늘의 문 세 개가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과 출구의 개수도 같았습니다.

제 36 장

1. 그리고 거기서 나는 남쪽으로 땅 끝까지 가서 하늘의 열린 세 문을 보았는데, 거기서 이슬과 비와 바람이 내렸다.
2. 그리고 거기서 나는 동쪽으로 하늘 끝까지 가서 하늘의 세 동쪽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위에는 작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3. 이 작은 문들을 통해 하늘의 별들이 지나가며, 그들에게 보여지는 길을 따라 서쪽으로 나아갑니다.
4. 내가 볼 때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였고, 크고 영광스러운 기적을 행하셔서 천사들과 영들과 사람들에게 그분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 보이신 영광의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분의 일과 그분의 모든 창조물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의 일을 보고 그분의 위대한 손으로 하신 일을 찬양하며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제 37 장

1. 그가 본 두 번째 환상은 지혜의 환상이니, 이는 야렛의 아들이요 마할랄렐의 아들이요 가이난의 아들이요 에노스의 아들이요 셋의 아들이요 아담의 아들인 에녹이 본 것이다.
2. 이것은 내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말하려고 목소리를 높여 전한 지혜의 말씀의 시작이다. 옛적 사람들아, 들으라. 그리고 후손들아, 보라. 내가 영들의 주님 앞에서 말할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3. 그것들을 옛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후손들에게도 지혜의 시작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4. 오늘날까지 영들의 주님께서는 내가 깨달은 바에 따라, 그리고 영들의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영생의 몫을 내게 주신 것과 같은 지혜를 내게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5. 이제 내게 세 가지 비유가 주어졌으므로 내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비유들을 이야기하였다.

제 38 장

1. 첫 번째 비유. 의인들의 회중이 나타날 때에 죄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2. 의로우신 분이 의로운 자들의 눈앞에 나타나실 때에, 그들의 택함 받은 행위가 영들의 주께 달려 있고, 땅에 거하는 의로운 자들과 택함 받은 자들에게 빛이 나타날 때에, 죄인들의 거처는 어디이며, 영들의 주를 부인한 자들의 안식처는 어디겠느냐? 그들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3. 의인들의 비밀이 드러나고 죄인들이 심판받을 때에, 불경건한 자들은 의인들과 택함 받은 자들 앞에서 쫓겨날 것이다.
4. 그때부터 땅을 소유한 자들은 더 이상 권세도 없고 교만도 없을 것이며, 거룩한 자들의 얼굴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영들의 주님께서 거룩하고 의롭고 택함 받은 자들의 얼굴에 그분의 빛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5. 그때에 왕들과 권력자들은 멸망하고 의롭고 거룩한 자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6.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아무도 영들의 주께 자비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생명은 끝났기 때문이다.

제 39 장

1. 그 날에 택함 받은 거룩한 자녀들이 높은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며, 그들의 자손은 사람의 자녀들과 하나가 될 것이다.
2. 그 당시 에녹은 열심과 진노에 관한 책들과 불안과 추방에 관한 책들을 받았습니다. 영들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는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3. 그 무렵 회오리바람이 나를 땅에서 휩쓸어 하늘 끝에 내려놓았네.
4. 그리고 거기서 나는 또 다른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은 거룩한 자들의 거처요, 의로운 자들의 안식처였습니다.
5. 내 눈은 그들이 의로운 천사들과 함께 거하는 처소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자는 안식처를 보았도다. 그들이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니 의가 물처럼 그들 앞에 흐르고 자비가 이슬처럼 땅 위에 내리도다. 이와 같이 영원무궁토록 그들 가운데 있도다.
6a. 그리고 그곳에서 내 눈은 의와 믿음의 택하신 이를 보았네.
7a. 그리고 나는 만군의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그의 거처를 보았습니다.
6b. 그의 시대에는 의가 승리할 것이며, 의인과 택함 받은 자들은 그 앞에서 영원무궁토록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7b. 그리고 그분 앞에서 의롭고 택함 받은 자들은 모두 불꽃처럼 강할 것이며, 그들의 입은 축복으로 가득 차고, 그들의 입술은 영들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며, 그분 앞에서 의로움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 앞에서 정직함도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8. 나는 그곳에 거하기를 원하였고, 내 영혼은 그곳을 거처로 삼고자 간절히 소망하였도다. 그곳은 이미 나의 몫이었으니, 이는 영들의 주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정해지셨음이라.

9. 그 당시 나는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며 복과 찬미를 드렸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만군의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를 복과 영광을 받도록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10. 나는 오랫동안 그곳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복되시도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복되시도다.'
11. 그리고 그분 앞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한 것과 대대로 이어질 것을 아십니다.
12. 잠들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 앞에 서서 찬양하고 찬미하며 이르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영들의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온 땅을 영들로 가득 채우셨도다." 하였습니다.
13. 그리고 내 눈은 잠들지 않는 모든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그분 앞에 서서 찬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영원무궁토록 주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14. 그러자 내 얼굴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40 장

1. 그 후에 내가 보니 수만 수만,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영들의 주님 앞에 서 있더라.
2. 그리고 나는 영들의 주님의 사방에서 잠들지 않는 영들과는 다른 네 영을 보았고, 그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갔던 천사가 그 이름을 내게 알려주었고, 숨겨진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3. 그리고 나는 그 네 존재가 영광의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4. 첫 번째 음성은 영원무궁토록 영들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5. 그리고 내가 들은 두 번째 음성은 택함 받은 자와 영들의 주님을 붙잡고 있는 택함 받은 자들을 축복하는 음성이었습니다.
6. 그리고 내가 들은 세 번째 음성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며 영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7. 그리고 나는 넷째 음성이 사탄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영들의 주님 앞에 나아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고발하지 못하게 금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8. 그 후에 나와 함께 다니며 숨겨진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었던 평화의 천사에게 내가 물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기록한 이 네 존재는 누구입니까?'
9. 그가 내게 이르시되 첫째는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는 미가엘이요 둘째는 모든 질병과 모든 상처를 다스리는 라파엘이요 셋째는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가브리엘이요 넷째는 영생을 상속받을 자들의 소망에 이르는 회개를 다스리는 파누엘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바로 만군의 주님의 네 천사요 내가 그 날들에 들은 네 음성이니라.

제 41 장

1. 그 후에 나는 하늘의 모든 비밀과 왕국이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행위가 어떻게 저울에 달아지는지를 보았습니다.
2. 거기서 나는 택함 받은 자들의 처소와 거룩한 자들의 처소를 보았고, 내 눈은 거기서 영들의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모든 죄인들이 쫓겨나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영들의 주님께서 내리시는 형벌 때문에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3. 그리고 거기서 내 눈은 번개와 천둥의 비밀, 바람의 비밀, 그것들이 어떻게 갈라져 땅 위로 불어오는지, 구름과 이슬의 비밀을 보았고, 그것들이 그곳에서 어디에서 비롯되어 먼지투성이 땅을 적시는지도 보았다.
4. 그리고 거기서 나는 바람이 갈라지는 닫힌 방들을 보았는데, 우박과 바람의 방, 안개의 방, 구름의 방이 있었고, 그 구름은 세상 창조 때부터 땅 위에 떠 있었습니다.
5. 그리고 나는 해와 달의 방들을 보았는데, 그것들이 어디에서 나오고 어디로 다시 오는지, 그리고 그들의 영광스러운 귀환을 보았으며,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우월하고, 그들의 장엄한 궤도를 보았으며, 그들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궤도에 아무것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으며, 서로 맺어진 맹세대로 서로에게 신의를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6. 그리고 먼저 해가 떠올라 만군의 주님의 명령대로 그 길을 따라 나아가니, 그분의 이름은 영원무궁토록 위대하시도다.
7. 그 후에 내가 달의 숨겨진 길과 드러난 길을 보았는데, 달은 낮과 밤에 그곳에서 그 길을 따라 움직이며, 만군의 주님 앞에서 서로 마주 보고 있더라. 그들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에게 감사하는 안식이 있기 때문이니라.
8. 해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며, 달의 움직임은 의인에게는 빛이요 죄인에게는 어둠이니라. 이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사람의 마음을 나누시며 의인의 마음을 강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이니라.
9. 이는 어떤 천사도 막지 못하며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심판자를 세우시고 그분 앞에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42 장

1. 지혜가 거할 곳을 찾지 못하자, 하늘에 거처가 마련되었다.
2. 지혜가 사람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려고 나갔으나 거처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지혜가 자기 처소로 돌아가 천사들 가운데 앉으셨느니라.
3. 그리고 불의가 그녀의 방에서 나왔으니, 그녀가 찾지도 않았던 자들을 찾아내어 그들과 함께 거하였으니, 마치 사막에 내리는 비요 메마른 땅에 내리는 이슬과 같았도다.

제 43 장

1. 그리고 나는 다른 번개들과 하늘의 별들을 보았는데, 그분께서 그것들을 모두 이름으로 부르시니 그것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 내가 보니 그들이 빛의 비율에 따라 의로운 저울에 달아지는 것이요, 그들의 공간의 넓이와 그들이 나타나는 날, 그리고 그들의 회전이 번개를 일으키는 것이요, 천사들의 수에 따라 그들이 회전하며 서로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로다.
3. 그리고 나와 함께 가면서 내게 숨겨진 것을 보여준 천사에게 내가 물었습니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4. 그러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영들의 주께서 너에게 그 이름들의 비유적인 의미를 보여주셨다. 이것들은 땅에 거하며 영원무궁토록 영들의 주의 이름을 믿는 거룩한 자들의 이름들이다.'

제 44 장

번개와 관련하여 또 다른 현상을 목격했는데, 일부 별들이 떠올라 번개가 된 후에는 그 새로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45 장

1. 이것은 성도들의 거처와 영들의 주의 이름을 부인하는 자들에 관한 두 번째 비유입니다.
2. 그들은 하늘에 오르지 못하며 땅에도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이는 영들의 주님의 이름을 부인한 죄인들의 몫이니, 그들은 고난과 환난의 날을 위해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3. 그 날에 나의 택하신 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들의 행위를 시험하시리니, 그들의 안식처는 무수할 것이며, 나의 택하신 자들을 뵙고 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볼 때에 그들의 영혼은 강건해질 것이다.
4. 그때에 내가 택한 자를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하늘을 변화시켜 영원한 복과 빛으로 만들리라.
5. 내가 땅을 변화시켜 복된 땅으로 만들고 나의 택하신 자들이 그 위에 거주하게 하리라. 죄인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땅에 발을 딛지 못하게 하리라.
6. 내가 의인들을 평화로 충만하게 하고 내 앞에 거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내가 심판을 임박하게 하여 그들을 땅에서 완전히 멸망시키리라.

제 46 장

1. 그리고 거기서 나는 머리가 긴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머리는 양털처럼 희었고, 그분과 함께 또 다른 이가 있었는데, 그분의 용모는 사람의 형상이었고, 얼굴은 거룩한 천사 중 하나와 같이 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 그리고 나와 함께 다니며 내게 감추어진 모든 것을 보여주신 천사에게, 그 인자가 누구시며 어디에서 오셨으며 어찌하여 만물의 머리이신 하나님과 함께 가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분은 의로우신 인자시요, 의가 거하시는 분이시며, 감추어진 모든 보물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니라.
3. 이는 만군의 주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며, 그의 몫은 만군의 주 앞에서 영원히 의로움에 있어서 으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네가 본 이 인자는 왕들과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강한 자들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리며, 강한 자들의 고삐를 풀고, 죄인들의 이를 부러뜨릴 것이다.
5. 그리고 그분은 왕들을 그들의 왕좌와 왕국에서 끌어내리실 것이다. 이는 그들이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 왕국이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졌는지 겸손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6. 그가 강한 자들의 얼굴을 낮추시고 그들을 수치로 가득 채우시리니, 그들의 거처는 어둠이요, 그들의 침상은 벌레가요, 그들은 침상에서 일어날 소망이 없으리니, 이는 그들이 영들의 주의 이름을 찬양하지 아니함이라.
7. 이들은 하늘의 별들을 심판하는 자들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께 손을 대는 자들이요, 땅을 짓밟고 그 위에 거하는 자들이니라. 그들의 모든 행위는 불의함을 드러내고, 그들의 권력은 그들의 재물에 있으며,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손으로 만든 신들에게 있고, 그들은 영들의 주의 이름을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8.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회중의 집들을 박해하고,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신실한 자들을 박해합니다.

제 47 장

1. 그 날에는 의인의 기도가 올라가고 의인의 피가 땅에서 영들의 주님 앞에 흘러내릴 것이다.
2. 그 날에 하늘에 거하는 거룩한 자들이 한 목소리로 모여 간구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의인들의 흘린 피를 위하여 감사하고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의인들의 기도가 만군의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게 하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하며, 그들이 영원히 고통받지 않게 하리로다.
3. 그 날들에 내가 보니, 주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살아 있는 자들의 책이 그분 앞에 펼쳐졌으며, 하늘 위의 모든 군대와 그의 고문자들이 그분 앞에 서 있더라.
4. 거룩한 자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으니 이는 의인들의 수가 제물로 바쳐졌고 의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으며 의인들의 피가 영들의 주님 앞에서 요구되었기 때문이라.

제 48 장

1. 그리고 내가 거기서 마르지 않는 의의 샘을 보았는데, 그 주위에는 지혜의 샘이 많았더라. 목마른 자는 다 그 물을 마시고 지혜로 충만하여 의롭고 거룩하고 택함 받은 자들과 함께 거하였더라.

2. 그 시간에 인자는 영들의 주님 앞에서 이름을 얻었고, 그의 이름은 날들의 머리이신 주님 앞에서 알려졌느니라.
3. 참으로, 해와 그 표징들이 창조되기 전, 하늘의 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의 이름은 만군의 주 앞에서 불리셨느니라.
4. 그는 의인들이 의지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는 지팡이가 되실 것이며, 이방인의 빛이시요, 마음이 근심하는 자들의 소망이 되실 것이다.
5.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만군의 주를 찬양하고 축복하며 노래로 경배하리라.
6. 그러므로 그는 세상 창조 이전부터 영원토록 그분 앞에 택함 받고 감추어져 있었느니라.
7. 만군의 주님의 지혜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그를 나타내셨으니 이는 그가 의로운 자들의 운명을 보존하셨음이라. 이는 그들이 불의한 이 세상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모든 행위와 방식을 미워하였음이라. 그들이 그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들의 생명을 이루셨음이니라.
8. 이 날에는 땅의 왕들이나 자기 손으로 땅을 차지한 강한 자들이 얼굴을 붉히게 될 것이니, 그들의 고통과 환난의 날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9. 내가 그들을 나의 택하신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니, 그들은 거룩한 자들 앞에서 불 속의 짚처럼 타버릴 것이며, 의로운 자들 앞에서 물 속의 납처럼 가라앉을 것이며, 그들의 흔적조차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10. 그들이 고난받는 날에 땅은 평온할 것이며, 그들은 그들 앞에서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며,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울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영들의 주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부인했기 때문이다. 영들의 주님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제 49 장

지혜는 물처럼 부어지고, 그 영광은 영원토록 그 앞에서 끊이지 않으리로다.
2. 이는 그가 의의 모든 비밀을 아시는 능력이 있으시며, 불의는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영원히 없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택하신 자가 만군의 주 앞에 서 계시며 그의 영광은 영원무궁토록요 그의 능력은 모든 세대에까지 이르리라.
3. 그리고 그분 안에는 지혜의 영이 거하시고, 명철의 영이 거하시고, 명철과 능력의 영이 거하시고, 의롭게 잠든 자들의 영이 거하십니다.
4. 그리고 그는 은밀한 일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아무도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그가 만군의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택하신 자이시기 때문이다.

제 50 장

1. 그 날에 거룩하고 택함 받은 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리니, 밝은 날들이 그들 위에 머물며, 영광과 존귀가 거룩한 자들에게로 향하리라.
2. 죄인들을 대적하여 악이 쌓여가는 고난의 날에 의인들은 영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며, 그분은 다른 이들에게도 이를 목격하게 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자기 손으로 행한 악을 버리게 하실 것이다.
3. 그들은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나,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며, 만군의 주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니, 그의 자비가 크도다.
4. 그분은 또한 심판에 있어서 의로우시며, 그분의 영광 앞에서 불의는 설 자리가 없으리니, 그분의 심판 때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분 앞에서 멸망하리라.
5.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고 영들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제 51 장

1. 그 날에 땅도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돌려주고, 스올도 자기가 받은 것을 돌려주고, 지옥도 자기가 빚진 것을 돌려줄 것이다.
2. 그리고 그분은 그들 가운데서 의롭고 거룩한 자들을 택하실 것이다. 이는 그들이 구원받을 날이 가까이 왔음이다.
3. 그 날에 택하신 자가 내 보좌에 앉을 것이요, 그의 입에서 지혜와 모략의 모든 비밀을 쏟아낼 것이니, 이는 만군의 주께서 그에게 그것들을 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음이니라.
4. 그 날에는 산들이 숫양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젖을 먹은 어린 양처럼 깡충깡충 뛰놀며, 하늘의 모든 천사들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날 것이다.
5. 그 날에 택하신 자가 일어나시리니 땅이 기뻐하며 의인들이 그 위에 거하고 택함 받은 자들이 그 위를 걸으리라.

제 52 장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숨겨진 모든 환상을 보았던 날들이 지난 후, 나는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2. 거기서 내 눈은 장차 있을 하늘의 모든 비밀을 보았으니, 곧 철산, 구리산, 은산, 금산, 연금속산, 납산이더라.
3. 그리고 나와 함께 가던 천사에게 내가 은밀히 본 이것들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4.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본 이 모든 것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땅에서 강력하고 위대하게 되도록 그의 통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5. 그러자 평화의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조금만 기다리면 영들의 주님을 둘러싼 모든 비밀이 너에게 드러나리라.'

6. 네 눈으로 본 이 산들, 곧 철산, 구리산, 은산, 금산, 연금속산, 납산이 다 택함 받은 자 앞에서는 밀랍 같고 불 앞의 떡 같으며, 위에서 그 산들 위로 쏟아지는 물과 같아서 그의 발 앞에서 무력해질 것이다.
7. 그 날에는 금이나 은으로도 구원받을 자가 없고, 피할 자도 없을 것이다.
8. 전쟁에 쓸 철은 없어야 하고, 갑옷도 입지 말아야 한다. 청동도 쓸모없고, 주석도 쓸모없고 귀하게 여겨져서는 안 되며, 납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9. 그리고 택함 받은 자가 영들의 주님 앞에 나타날 때에 이 모든 것이 땅 표면에서 부인되고 사라질 것이다.

제 53 장

1. 거기서 내 눈은 깊은 골짜기와 벌어진 입을 보았는데, 땅과 바다와 섬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예물과 선물과 경배의 표시를 가져올지라도 그 깊은 골짜기는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2. 그들의 손은 불법을 행하고, 죄인들은 불법적으로 억압하는 모든 자들을 삼켜 버립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영들의 주님 앞에서 멸망할 것이며, 그분의 땅에서 쫓겨나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3. 내가 보니 형벌의 모든 천사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사탄의 모든 도구를 준비하고 있더라.
4. 그리고 나와 함께 가던 평화의 천사에게 내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위해 이 악기들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5. 그리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들은 이 땅의 왕들과 권력자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준비하여,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하게 하려 함이라.'
6. 그리고 그 후에 의로우시고 택하신 분이 그의 회중의 집을 나타내실 것이니, 이제부터는 영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더 이상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7. 이 산들은 그의 의로움 앞에서 땅처럼 서 있지 못할 것이며, 산들은 샘물처럼 솟아날 것이며, 의인들은 죄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제 54 장

1. 내가 눈을 돌려 땅의 다른 곳을 보니, 거기에 불이 타오르는 깊은 골짜기가 있었다.
2. 그리고 그들은 왕들과 권력자들을 끌어내어 이 깊은 골짜기에 던져 넣기 시작했습니다.
3. 그리고 내 눈은 그들이 헤아릴 수 없이 무거운 쇠사슬을 도구로 만드는 것을 보았다.
4. 그리고 나와 함께 가던 평화의 천사에게 내가 물었습니다. '이 사슬은 누구를 위해 준비되는 것입니까?'
5. 그리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것들은 아자젤의 군대를 위하여 준비되는 것이니 그들이 그것들을 가져다가 완전한 심판의 심연에 던져 넣고 영들의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의 턱을 거친 돌로 덮을 것이라 하시니라
6. 그리고 그 큰 날에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라파엘과 파누엘이 그들을 붙잡아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을 것이니, 이는 만군의 주께서 그들이 사탄에게 복종하여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한 불의에 대하여 복수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7. '그 날에 영들의 주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며, 그분께서 하늘 위에 있는 모든 물의 방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샘의 문을 열 것입니다.'
8. 그리고 모든 물은 물과 합쳐질 것이다. 하늘 위에 있는 것은 남성적인 것이요, 땅 아래에 있는 물은 여성적인 것이다.
9. 그리고 그들은 땅에 사는 모든 자들과 하늘 끝 아래에 사는 모든 자들을 멸할 것이다.
10. 그들이 땅에서 행한 불의를 깨닫게 될 때에, 그때에 그들은 이것들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다.

제 55 장

1. 그 후에 만물의 주께서 후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을 헛되이 멸하였도다.'
2.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위대한 이름으로 맹세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땅에 사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하늘에 표징을 세우겠다. 이것은 하늘이 땅 위에 있는 동안 나와 그들 사이에 영원한 신실의 보증이 될 것이다. 이것은 나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3. 내가 환난과 고통의 날에 천사들의 손으로 그들을 붙잡고자 할 때에, 나의 징벌과 진노를 그들 위에 두리라. 이는 영들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4. 땅에 거하는 강대한 왕들아, 너희는 나의 택하신 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 아자젤과 그의 모든 동료들과 그의 모든 군대를 영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아야 할 것이다.

제 56 장

1. 그리고 내가 보니 심판의 천사 무리가 채찍과 쇠사슬과 청동사슬을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2. 그리고 나와 함께 가던 평화의 천사에게 내가 물었습니다. '채찍을 들고 가는 자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3.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택함받은 자들과 사랑받는 자들에게는 골짜기의 심연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4. 그때에 그 골짜기는 그들의 택하신 자들과 사랑받는 자들로 가득 찰 것이며, 그들의 생명의 날들은 끝날 것이고, 그들이 미혹되었던 날들은 다시는 헤아리지 않을 것이다.
5. 그 날에 천사들이 돌아와서 동쪽으로 파르티아인과 메디아인을 향해 돌격할 것이며, 왕들을 자극하여 불안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고, 왕좌에서 깨어나게 하여 사자처럼 굴에서 뛰쳐나오게 하고 굶주린 늑대처럼 양 떼 가운데로 나오게 할 것이다.
6. 그들이 올라가서 그분의 택하신 자들의 땅을 짓밟을 것이요, 그분의 택하신 자들의 땅은 그들 앞에서 타작마당과 대로가 될 것이다.
7. 그러나 나의 의인들이 사는 성은 그들의 말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의 오른손은 자기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여 시체가 셀 수 없이 많아질 때까지, 사람은 자기 형제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형벌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8. 그 날에 스올이 입을 벌리니 그들이 그 안에 삼켜질 것이요 그들의 멸망이 끝날 것이라. 스올이 택함 받은 자들 앞에서 죄인들을 삼킬 것이라.

제 57 장

1. 그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무리의 수레와 그 위에 탄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을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2. 그들의 수레 소리가 들리고, 이 소동이 일어나자 하늘의 거룩한 이들이 그것을 알아차렸으며, 땅의 기둥들이 그 자리에서 옮겨졌고, 그 소리가 하루 만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들렸다.
3. 그러면 그들은 모두 엎드려 영들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이것으로 두 번째 비유가 끝났다.

제 58 장

1. 그리고 나는 의인과 택함 받은 자에 관한 세 번째 비유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 의롭고 택함 받은 자들아, 너희는 복이 있도다. 너희의 몫이 영광스러울 것이라.
3. 의인들은 해의 빛 가운데 있을 것이요 택함 받은 자들은 영생의 빛 가운데 있을 것이니 그들의 날은 끝이 없고 거룩한 자들의 날은 무궁무진하리라.
4. 그들은 빛을 찾고 영들의 주님과 함께 의를 얻을 것이며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들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5. 그리고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르기를, 의의 비밀, 곧 믿음의 유산을 찾으라 하리라. 이는 그것이 땅 위의 해처럼 밝아졌고, 어둠은 지나갔음이니라.
6.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있을 것이며, 그 빛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는 먼저 어둠이 사라지고, 만군의 주 앞에 빛이 세워지고, 만군의 주 앞에 의의 빛이 영원히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제 59 장

1. 그 당시 내 눈은 번개와 빛들의 비밀과 그것들이 집행하는 심판, 그리고 영들의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축복이나 저주를 내리는 빛을 보았습니다.
2. 그리고 거기서 나는 천둥의 비밀을 보았고, 그 소리가 하늘 위에서 울려 퍼질 때 어떻게 들리는지 알게 되었으며, 그분은 내게 땅에서 집행되는 심판을 보게 하셨는데, 그 심판은 만군의 주님의 말씀대로 평안과 복을 위한 것이든지 저주를 위한 것이든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 그 후에 빛과 번개의 모든 비밀이 내게 드러났고, 그것들은 축복과 만족을 위해 빛을 발한다.

제 60 장

1. 에녹의 생애 500 년 7 월 14 일에, 그 비유에서 나는 하늘 위의 하늘이 흔들리는 강력한 진동을 보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군대와 수많은 천사들이 큰 동요에 빠졌습니다.
2. 그리고 만물의 머리이신 분께서 그분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니 천사들과 의인들이 그분 주위에 서 있었다.
3. 그러자 큰 떨림이 나를 사로잡았고, 두려움이 나를 덮쳤으며, 허리에 힘이 빠지고, 고삐가 풀려 버렸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4. 그리고 미가엘이 거룩한 자들 가운데서 또 다른 천사를 보내어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가 나를 일으켜 세우자 내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 무리의 모습과 하늘의 소란과 진동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가엘이 내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환상을 보고 불안해하느냐? 오늘까지 주님의 자비의 날이 계속되었으니, 주님께서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자비롭고 오래 참으셨느니라.'
5. 그리고 만군의 주께서 의로운 율법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과 의로운 심판을 부인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날과 권세와 형벌과 심판이 임할 때에,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언약이 예비되었고, 죄인들에게는 심판이 예비되었느니라.
6. 만군의 주님의 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는, 그 형벌이 헛되이 임하지 않도록 임할 것이며, 자녀들을 어머니와 함께, 자녀들을 아버지와 함께 죽일 것이다. 그 후에 심판은 그분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7. 그리고 그날에 두 괴물이 갈라졌으니, 암컷 괴물은 레비아탄이라 불리며, 바다 깊은 곳, 물의 샘 위에 거하게 되었더라.
8. 그러나 그 남자의 이름은 베헤못인데, 그는 선택받은 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거하는 동산 동쪽에 있는 두이다인이라는 황량한 광야를 가슴으로 차지하였으니, 그곳은 나의 조부가 승천하신 곳이며, 그는 만군의 주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후손이다.
9.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에게 그 괴물들의 위력을 보여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루 만에 갈라져서 하나는 바다 깊은 곳으로, 다른 하나는 광야의 마른 땅으로 던져졌는지 말입니다.
10.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안에 숨겨진 것을 알고자 하는구나.'
11. 그리고 나와 함께 다니며 내게 숨겨진 것을 보여주신 다른 천사가 하늘 높은 곳에 있는 첫째와 마지막, 땅 아래 깊은 곳에 있는 것, 그리고 하늘 끝과 하늘 기초 위에 있는 것을 내게 알려주었습니다.
12. 그리고 바람의 방들과 바람을 나누는 방법, 바람의 무게를 재는 방법, 바람의 문을 세는 방법, 각 문은 바람의 세기와 달빛의 세기, 그리고 그에 합당한 힘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별들을 그 이름에 따라 나누는 방법, 그리고 모든 구분이 어떻게 나뉘는지에 대하여.

13. 그리고 천둥은 그치는 곳마다 다르게 치고, 번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번성하여 빛을 비추며, 그 무리는 즉시 순종하게 될 것이다.
14. 천둥은 울려 퍼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쉬는 곳이 있으며, 천둥과 번개는 뗄 수 없이 함께 있습니다. 비록 하나이면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둘은 영 안에서 함께하며 분리되지 않습니다.
15. 번개가 번쩍일 때 천둥이 소리를 내고, 영은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잠시 멈추게 하여 그 소리를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그 소리의 보고는 모래알 같아서, 각각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고삐로 붙잡혀 있다가 영의 힘으로 되돌아가기도 하고, 땅의 여러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16. 바다의 영은 남성적이고 강하여, 그 힘에 따라 고삐로 물을 뒤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아가 땅의 모든 산들 사이로 흩어지기도 합니다.
17. 서리의 영은 그분의 천사요, 우박의 영은 선한 천사이다.
18. 그리고 눈의 신령은 그 힘 때문에 자기 처소를 떠났으니, 거기에는 특별한 신령이 있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은 연기 같으니, 그 이름은 서리라.
19. 안개의 영은 그들과 함께 그들의 방에 있지 않고, 특별한 방을 가지고 있다. 안개의 영은 빛 가운데서나 어둠 속에서나, 겨울에도 여름에도 영광스럽게 행하며, 그 방에는 천사가 있다.
20. 이슬의 영은 하늘 끝에 거하며 비의 방들과 연결되어 있고, 겨울과 여름에 그 흐름이 있으며, 이슬 구름과 안개 구름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가 다른 하나에 영향을 준다.
21. 비의 영이 그 방에서 나올 때에 천사들이 와서 그 방을 열고 그것을 인도하여 내는데, 그것이 온 땅에 뿌려지면 땅 위의 물과 합쳐진다. 그리고 그것이 땅 위의 물과 합쳐지면…
22. 물은 땅에 사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땅을 위해 주신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에는 정해진 양이 있고, 천사들이 그것을 관리합니다.
23. 내가 의인들의 동산을 향하여 이러한 것들을 보았다.
24. 나와 함께 있던 평화의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 두 괴물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합당하게 지음 받았으니 먹이를 줄 것이라…

제 61 장

1. 그리고 내가 보니 그 당시 천사들에게 긴 줄이 주어졌고, 그들은 날개를 달고 날아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2. 내가 천사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저 천사들이 이 줄들을 가지고 갔습니까?' 하니, 천사가 내게 이르되, '그들은 측량하러 갔습니다.' 하였더라.
3. 나와 함께 가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것들이 의인들의 측량 도구와 의인들의 줄을 의인들에게 가져다 줄 것이니, 그리하여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굳게 서게 하리라.'
4. 택함 받은 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며, 이는 믿음에 주어지는 조치들이며, 의를 강화할 것입니다.
5. 그리고 이 조치들은 땅속 깊은 곳의 모든 비밀을 드러낼 것이며, 사막에 의해 멸망당한 자들과 짐승들에게 잡아먹힌 자들과 바다 물고기들에게 잡아먹힌 자들을 밝혀내어, 택함 받은 자의 날에 그들이 돌아와 스스로를 지키게 할 것이다. 이는 영들의 주님 앞에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멸망할 수 없기 때문이다.
6. 그리고 하늘에 거하는 모든 이들은 명령과 권능과 한 음성과 불과 같은 한 빛을 받았습니다.
7. 그들은 첫마디로 그분을 축복하고 지혜롭게 칭송하며, 말과 삶의 정신에 있어서 지혜로웠더라.
8. 그리고 영들의 주께서 택하신 자를 영광의 보좌에 앉히셨으니, 그가 하늘 위의 거룩한 자들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고, 그들의 행위는 저울에 달아보시리라.
9. 그가 얼굴을 드시고 영들의 주의 이름의 말씀대로 그들의 은밀한 행위를 심판하시고 영들의 주의 공의로운 심판의 길대로 그들의 길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다 한 목소리로 말하여 축복하고 영들의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고 거룩하게 할 것이라.
10. 그리고 그분은 하늘의 모든 군대와 위에 있는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하나님의 군대, 그룹 천사, 세라핌 천사, 오파닌 천사, 모든 권세의 천사, 모든 정사들의 천사, 택함 받은 자, 그리고 땅과 물 위에 있는 다른 권세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11. 그 날에 모든 사람이 한목소리로 믿음의 영과 지혜의 영과 인내의 영과 자비의 영과 공의의 영과 선의 영으로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고 높이며 다 한목소리로 "그분은 복되시며 만군의 주의 이름이 영원무궁토록 복되도다"라고 말할지니라.
12. 하늘에서 잠들지 않은 모든 이들이 그를 찬양할 것이며,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를 찬양할 것이며, 생명의 동산에 거하는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이 그를 찬양할 것이며,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고 높이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빛의 영들이 그를 찬양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한없이 주의 이름을 영원무궁토록 영화롭게 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13. 만군의 주님의 자비는 크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모든 작품과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의인과 택함 받은 자들에게 나타내셨도다.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제 62 장

1. 그리하여 주님께서 왕들과 권력자들과 높은 자들과 땅에 사는 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가 택함 받은 자를 알아볼 수 있으면 눈을 뜨고 뿔을 들어 올리라' 하셨다.
2. 만군의 주께서 그를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고 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지시니 그의 입의 말씀이 모든 죄인을 멸하고 모든 불의한 자는 그의 앞에서 멸망하도다.

3. 그 날에 모든 왕들과 권력자들과 높으신 자들과 땅을 붙드시는 자들이 일어서서 그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을 보고 알아볼 것이며, 그분 앞에서 의가 심판받고, 그분 앞에서 거짓된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4. 그때에 그들에게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임할 것이며, 아이가 태중에 들어갈 때에도 해산의 고통을 겪을 것이요,
5. 그들 중 한 무리가 다른 무리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얼굴이 어두워지고 고통이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인자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볼 때에 그러할 것이다.
6. 그리고 왕들과 권력자들과 땅을 소유한 모든 자들이 만물을 다스리시며 감추어져 계시던 그분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고 높이 찬양할지니라.
7. 인자는 태초부터 감추어져 있었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의 능력으로 그를 보호하시어 택함 받은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8. 택함 받은 자들과 거룩한 자들의 회중이 뿌려질 것이며, 택함 받은 자들은 모두 그 날에 그분 앞에 설 것이다.
9. 모든 왕들과 권력자들과 높은 자들과 땅을 다스리는 자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인자를 그분께 소망을 두고 간구하며 그분의 손에서 자비를 구할 것이다.
10. 그러나 만군의 주께서 그들을 몰아내시어 그들이 그분의 앞에서 황급히 도망치게 하시고 그들의 얼굴은 수치로 가득 차게 하시며 그들의 얼굴에 어둠이 더욱 짙어지게 하실 것이다.
11.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천사들에게 넘겨주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분의 자녀와 택하신 자들을 억압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함입니다.
12. 그들은 의인과 그분의 택하신 자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것이며, 그들은 그들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는 만군의 주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고, 그분의 칼이 그들의 피로 취했기 때문이다.
13. 의인과 택함 받은 자는 그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 후로는 죄인과 불의한 자들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14. 그리고 영들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거하시리니, 그들은 인자와 함께 먹으며 영원무궁토록 눕고 일어날 것이라.
15. 의인들과 택함 받은 자들은 땅에서 일어나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영광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16. 이것들은 영들의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옷이니, 너희 옷은 낡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영광도 영들의 주 앞에서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제 63 장

1. 그 날에 땅을 소유한 권력자들과 왕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들을 넘겨준 형벌의 천사들로부터 잠시 유예를 주시어, 영들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께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게 하리이다.
2. 그리고 그들은 영들의 주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영들의 주님, 왕들의 주님, 강한 자들의 주님, 부유한 자들의 주님, 영광의 주님, 지혜의 주님, 찬송받으소서.'
3. 주의 모든 은밀한 일에 주의 권능이 대대로 빛나고 주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크나이다. 주의 모든 비밀은 깊고 헤아릴 수 없으며 주의 의는 측량할 수 없나이다.
4. 이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왕 위에 왕이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5.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안식을 얻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6. 이제 우리는 잠시라도 쉬고 싶지만 찾지 못하고, 애써 쫓아가도 얻지 못하며, 빛은 우리 앞에서 사라지고, 어둠이 영원토록 우리의 거처가 되었도다.
7. 우리가 그분 이전에는 믿지 아니하였고, 영들의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주를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였으니, 오직 우리의 소망은 우리 왕국의 홀과 우리의 영광에 있었느니라.
8. 고난과 환난의 날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고백할 틈도 찾지 못하나니, 우리 주님은 모든 일과 심판과 공의에 있어서 진실하시며, 그분의 심판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9. 우리가 우리 행위 때문에 그분 앞에서 사라지고, 우리 모든 죄가 의로 계산되리로다.
10. 이제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불의한 이득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스올의 짐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11. 그 후에 그들의 얼굴은 어둠으로 가득 차고 인자 앞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들의 면전에서 쫓겨날 것이며 칼이 그들 가운데서 그의 얼굴 앞에 계속 있을 것이다.
12. 만군의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만군의 주 앞에서 강한 자들과 왕들과 높은 자들과 땅을 소유한 자들 각자에 대한 규례와 심판이다.'

제 64 장

1. 그리고 그곳에 숨겨져 있던 다른 형체들도 보았습니다.
2. 나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이러했습니다. '이들은 땅으로 내려와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 천사들이다.'

제 65 장

1. 그 무렵 노아는 땅이 가라앉아 멸망이 임박했음을 보았다.
2. 그리고 그는 거기서 일어나 땅 끝까지 가서 그의 조부 에녹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노아는 쓰라린 목소리로 세 번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3. 내가 그에게 이르되, 땅이 이처럼 곤경에 처하고 흔들리는 것이 무엇이냐? 혹시 나도 함께 멸망할까 두려우니,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4. 그러자 땅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5. 그때 내 할아버지 에녹이 와서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게 통곡하며 울느냐?
6. 그리고 주님께서 땅에 사는 자들에 관하여 명하셨으니, 그들의 멸망은 그들이 천사들의 모든 비밀과 사탄들의 모든 폭력과 그들의 모든 권세, 곧 가장 은밀한 권세와 마술을 행하는 자들의 모든 권세와 주술의 권세와 온 땅을 위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드는 자들의 권세를 알아냈기 때문이니라.
7. 그리고 은이 어떻게 땅의 먼지에서 생겨나고, 어떻게 부드러운 금속이 땅에서 생겨나는가.
8. 납과 주석은 땅에서 처음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샘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샘에는 천사가 서 있고, 그 천사는 으뜸이니라.
9. 그 후에 나의 할아버지 에녹이 내 손을 잡고 나를 일으켜 세우며 내게 이르시되, '가거라, 내가 땅 위의 이 소란에 관하여 영들의 주께 여쭈어 보았느니라.'
10.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불의 때문에 그들의 심판이 정해졌고, 내가 영원히 그 심판을 미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탐구하고 배운 마술 때문에 땅과 그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다."
11. 그리고 이들은 영원히 회개할 자리가 없으니, 감추어진 것을 그들에게 드러냈기 때문이며,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아들아, 너는 영들의 주님께서 아시듯이 순결하고, 비밀에 관한 이 비난에 대해 죄가 없다.
12. 그분은 네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땅 위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 너를 보존하시며, 네 의로운 자손을 왕권과 큰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정하셨고, 네 자손으로부터 의롭고 거룩한 자들이 영원히 무수히 나올 것이다.

제 66 장

1. 그리고 나서 그분은 내게 심판의 천사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땅 아래 있는 물의 모든 권세를 풀어놓아 땅 위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 그리고 만군의 주께서 나아가는 천사들에게 물을 일으키지 말고 잠잠하게 하라고 명하셨으니, 이는 그 천사들이 물의 권세를 다스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
3. 그리고 나는 에녹 앞에서 떠나갔다.

제 67 장

1. 그 무렵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노아야, 네 제비가 내 앞에 이르렀으니 흠 없고 사랑과 정직한 제비로다.' 하시니라.
2. 이제 천사들이 나무로 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들이 그 일을 마치면 내가 내 손을 그 위에 얹어 보존하리라. 거기서 생명의 씨앗이 싹트고 변화가 일어나 땅이 거주민 없이 방치되지 않을 것이다.
3. 내가 네 자손을 내 앞에서 영원무궁토록 굳게 세우고 너와 함께 사는 자들을 널리 번성하게 하리라. 그들의 자손은 땅 위에서 번성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땅 위에서 복을 받아 번성하리라.
4. 그리고 그분은 불의를 행한 천사들을 나의 조부 에녹이 예전에 내게 보여주었던 서쪽의 금과 은과 철과 연금속과 주석의 산들 사이에 있는 불타는 골짜기에 가두실 것이다.
5. 그리고 내가 보니 그 골짜기에서 큰 소란과 물의 격류가 일어나고 있었다.
6.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불타는 용융 금속과 그곳에서 일어난 그 격동으로 인해 유황 냄새가 났고, 그 냄새는 그 물과 합쳐졌으며, 인류를 미혹했던 천사들의 골짜기는 그 땅 아래에서 불타올랐습니다.
7. 그리고 그 골짜기들을 통해 불의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곳에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한 천사들이 벌을 받습니다.
8. 그러나 그 물들은 그 날에 왕들과 권력자들과 높은 자들과 땅에 사는 자들을 위하여 육체의 병을 고치는 데 쓰이고 영혼의 벌을 내리는 데 쓰일 것이다. 지금 그들의 영혼은 정욕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들이 육체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영들의 주님을 부인하고 날마다 형벌을 받으면서도 그분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9. 그들의 몸이 타는 고통이 심해질수록 그들의 영혼에도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영원히 일어날 것이니, 이는 영들의 주님 앞에서 아무도 쓸데없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 그들이 육체의 정욕을 믿고 주님의 영을 부인하기 때문에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11. 그리고 그 물들은 그 날에 변화를 겪을 것이다. 천사들이 이 물에서 벌을 받을 때, 이 샘물의 온도가 변할 것이며, 천사들이 승천할 때, 이 샘물은 차가워질 것이다.
12. 그리고 나는 미가엘이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심판받는 이 심판은 땅을 소유한 왕들과 권력자들을 위한 증거입니다.'
13. 이 심판의 물은 왕들의 몸을 치유하고 그들의 정욕을 달래주기 때문에, 그들은 이 물이 변하여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 될 것을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을 것이다.

제 68 장

1. 그리고 나서 나의 할아버지 에녹은 그에게 주어진 비유의 책에 있는 모든 비밀을 내게 가르쳐 주셨고, 그 비밀들을 비유의 책의 말씀으로 정리하여 내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2. 그리고 그날 미가엘이 라파엘에게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영의 힘이 나를 사로잡고 떨게 합니다. 비밀의 심판, 천사들의 심판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누

가 그 엄중한 심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그들은 녹아내릴 뿐입니다.'
3. 그러자 미가엘이 다시 라파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에 마음이 누그러지지 아니하며, 이 심판의 말씀이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낸 자들 때문에 그들에게 임하였으니, 이 말씀으로 마음이 동요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
4. 미가엘이 만군의 주님 앞에 섰을 때, 라파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그들의 편을 들지 않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주님인 척 행합니다. 그러므로 숨겨진 모든 것이 영원토록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천사도 사람도 그 심판에 참여할 수 없으며, 오직 그들만이 영원토록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제 69 장

1. 그리고 이 심판 후에 그들은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두렵게 하고 떨게 할 것이다.
2. 그리고 보십시오, 그 천사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첫째는 삼자자, 둘째는 아르타키파, 셋째는 아르멘, 넷째는 코카벨, 다섯째는 투라엘, 여섯째는 룸잘, 일곱째는 단잘, 여덟째는 네카엘, 아홉째는 바라켈, 열째는 아자젤, 열한째는 아마로스, 열두째는 바타르잘, 열세째는 부사잘, 열네째는 하나넬, 열다섯째는 투렐, 열여섯째는 시마페시엘, 열일곱째는 제트렐, 열여덟째는 투마엘, 열아홉째는 투렐, 스무째는 룸잘, 스물한째는 아자젤입니다.
3. 그리고 이들은 그들의 천사들의 우두머리들이며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고, 그들 가운데 백 명, 오십 명, 십 명씩을 다스리는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4. 첫 번째 예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을 미혹하여 땅으로 끌어내리고 사람의 딸들을 통해 그들을 미혹한 자이다.
5. 둘째는 아스벨이라 불렸으니,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에게 악한 조언을 하여 그들을 미혹하여 사람의 딸들과 합하여 몸을 더럽히게 하였더라.
6. 셋째는 가드레엘이라 불리니라. 그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죽음의 모든 일격을 보여주었고, 하와를 미혹시켰으며, 사람의 아들들에게 죽음의 무기, 곧 방패와 갑옷과 전투용 칼과 모든 죽음의 무기를 보여주었느니라.
7. 그리고 그날부터 영원토록 그의 손에서 나온 자들이 땅에 사는 자들을 대적하여 나아갔느니라.
8. 그리고 넷째는 페네무에라 불렸으니, 그는 사람들에게 쓴맛과 단맛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지혜의 모든 비밀을 가르쳤다.
9.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에게 잉크와 종이로 글을 쓰는 법을 가르치셨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죄를 지었습니다.
10. 사람이 그런 목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니, 곧 자기들의 성실함을 펜과 잉크로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11. 사람은 천사와 똑같이 창조되었으니, 순수하고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 모든 것을 파괴하는 죽음이 그들을 사로잡을 수 없었으나, 그들이 이러한 지식을 알게 되면서 멸망하고 있으며, 이 권세가 나를 삼키고 있다.
12. 그리고 다섯 번째는 카스데야라고 불렸는데, 그는 인간의 자녀들에게 악한 영과 악마의 모든 악한 공격, 태아가 태중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공격, 영혼이 뱀에게 물리는 것을 보여주는 공격, 그리고 한낮의 더위로 인해 발생하는 공격을 보여주는 공격, 곧 타바엣이라는 뱀의 아들이다.
13. 그리고 이것은 카스벨의 임무이며, 그는 높은 곳에서 영광 가운데 거하실 때 성인들에게 보여주신 맹세의 으뜸이시며, 그 이름은 비카입니다.
14. 이 천사는 미가엘에게 숨겨진 이름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맹세로 그 이름을 선포하게 하려 했고, 그 이름과 맹세 앞에서 모든 비밀을 사람들에게 드러낸 자들이 떨게 하려 했습니다.
15. 이것이 바로 이 맹세의 힘입니다. 이 맹세는 강력하고 굳건하며, 그분은 이 아카에 맹세를 미카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16. 그리고 이것들이 이 맹세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의 맹세를 통해 굳건합니다. 하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고 영원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17.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땅은 물 위에 세워졌고, 산의 은밀한 곳에서 아름다운 물이 흘러나오니, 세상 창조 때부터 영원까지 그러하도다.
18. 그리고 그 맹세로 바다가 창조되었고, 그분은 바다의 기초로 그 분노의 때를 대비하여 모래를 놓으셨으니, 세상 창조부터 영원까지 바다는 감히 그 모래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19. 그리고 그 맹세로 말미암아 깊은 곳이 굳게 세워지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20. 그리고 그 맹세로 말미암아 해와 달은 그 궤도를 완성하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질서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리라.
21. 그리고 그 맹세를 통해 별들은 그 궤도를 완성하고, 그분은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별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께 응답합니다.
22. 이와 같이 물의 영과 바람의 영과 모든 산들바람의 영과 그것들이 모든 방향에서 불어오는 길도 그러하다.
23. 그리고 천둥소리와 번개의 빛이 보존되어 있고, 우박의 흔적과 서리의 흔적과 안개의 흔적과 비와 이슬의 흔적이 보존되어 있다.
24.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만군의 주 앞에 감사하며, 온 힘을 다해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들의 양식은 감사하는 행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만군의 주의 이름을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고 찬양합니다.
25. 이 맹세는 그들에게 강력하여, 이 맹세로 말미암아 그들이 보호받고 그들의 길이 보호받으며 그들의 여정이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26.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고, 인자의 이름이 그들에게 나타났으므로 그들은 축복하고 찬양하고 찬미하였다.

27. 그리고 그분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고, 심판의 최종 결정권이 인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인들을 땅에서 없애 버리고 세상을 미혹한 자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28. 그들은 사슬에 묶여 멸망의 집회 장소에 갇히게 될 것이며, 그들의 모든 행위는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29. 이제부터는 썩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니 이는 인자가 나타나셔서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음이라. 그 앞에서 모든 악이 사라지고 인자의 말씀이 만군의 주 앞에서 강성하게 되리니이다.

제 70 장

1. 그리고 그 후로 그의 생전에 그의 이름이 땅에 사는 자들 가운데서 인자요 영들의 주이신 그분께 높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 그리고 그는 영의 병거 위에 높이 들려 올려졌고 그의 이름은 그들 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3. 그날부터 나는 더 이상 그들 가운데 헤아려지지 아니하고, 나를 북쪽과 서쪽, 곧 두 바람 사이에 두셨으니, 천사들이 줄을 가져다가 택함 받은 자들과 의인들을 위한 처소를 측량하였더라.
4. 그리고 거기서 나는 첫 조상들과 태초부터 그곳에 거하시던 의인들을 보았습니다.

제 71 장

1. 그 후에 내 영이 옮겨져 하늘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을 보았더라. 그들은 불꽃 위를 걷고 있었고, 그들의 옷은 희고 그들의 장신구는 빛났으며, 그들의 얼굴은 눈처럼 빛났더라.
2. 그리고 나는 두 줄기의 불길을 보았는데, 그 불길은 히아신스처럼 빛났고, 나는 영들의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3. 그리고 대천사 중 하나인 미가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나를 들어 올려 모든 비밀의 길로 인도하여 내게 의의 모든 비밀을 보여주었다.
4. 그리고 그분은 내게 하늘 끝의 모든 비밀과 모든 별들의 모든 방과 모든 광명체들이 거룩한 자들 앞에서 나오는 모든 곳을 보여주셨습니다.
5. 그리고 그분께서 내 영혼을 하늘 위의 하늘로 옮기셨으니, 거기서 나는 마치 수정으로 지어진 듯한 구조물을 보았고, 그 수정들 사이에는 살아 있는 불꽃이 뻗어 있었다.
6. 내 영이 그 불타는 집을 둘러싼 띠를 보았는데, 그 사방에는 살아 있는 불의 강이 있었고, 그것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7. 그리고 주위에는 스랍과 케루빔과 오판닌이 있었으니 이들은 잠들지 않고 그분의 영광의 보좌를 지키는 자들이라.
8. 내가 보니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있더라. 수천, 수천, 만천 명의 천사들이 그 집을 드나들더라.
9. 그리고 그들이 그 집에서 나왔으니, 미가엘과 가브리엘, 라파엘과 파누엘,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거룩한 천사들이었다.
10.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신 분은 영원하신 머리시니, 그분의 머리는 양털처럼 희고 순결하시며, 그분의 옷은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우십니다.
11. 그리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온몸이 이완되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 권능의 영으로 부르짖으며 축복과 영광과 찬양을 받았습니다.
12.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온 이러한 축복의 말들은 온 세상의 머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셨습니다.
13. 그리고 그 날들의 우두머리께서 미가엘과 가브리엘, 라파엘과 파누엘, 곧 수천 수만 명의 천사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14.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오셔서 음성으로 인사하시며 내게 이르시기를 '이는 의에서 난 인자라. 의가 그 위에 거하고, 영원하신 머리의 의가 그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5. 그리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는 오는 세상의 이름으로 너에게 평화를 선포한다. 세상 창조 때부터 평화가 거기에서 나왔으니, 너에게도 영원무궁토록 그러할 것이다.'
16. 의가 그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이 그의 길을 따라 행하리라. 그들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고 그들의 유산이 그와 함께 있으며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그와 분리되지 아니하리라.
17. 그러므로 그 인자는 장수할 것이며, 의인들은 영원무궁토록 평화와 정직한 길을 누리리라.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제 72 장

1. 하늘의 광명체들의 운행과 각 광명체들의 종류, 지배 영역, 계절, 이름과 기원지, 그리고 각 달에 따른 관계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이는 나와 함께 있었던 거룩한 천사 우리엘이 내게 보여준 것이며, 그는 광명체들의 인도자이시며, 그들의 모든 법칙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세상의 모든 해와 영원까지, 영원까지 지속될 새 창조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내게 보여주셨다.
2. 그리고 이것이 천체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태양은 하늘의 동쪽 문에서 떠오르고 서쪽 문으로 집니다.
3. 그리고 내가 보니 해가 뜨는 여섯 개의 문과 해가 지는 여섯 개의 문이 있고, 달이 뜨고 지는 문도 이 여섯 개 있었으며, 별들의 인도자들과 그들이 인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동쪽에 여섯 개, 서쪽에 여섯 개가 있었고, 모두 정확하게 일치하는 순서대로 서로 이어져 있었으며, 이 문들의 좌우에도 많은 창들이 있었다.
4. 그리고 먼저 태양이라 불리는 위대한 광명이 떠오르는데, 그 둘레는 하늘의 둘레와 같고, 밝게 비추고 뜨겁게 하는 불로 가득 차 있다.

5. 그가 오르는 수레는 바람이 몰고, 태양은 하늘에서 내려와 북쪽을 지나 동쪽으로 돌아가며, 그렇게 인도되어 적절한 문에 이르러 하늘을 비춘다.
6. 이와 같이 그는 첫째 달에 큰 문에서 일어나는데, 이는 그 여섯 개의 문 중 네 번째 문이다.
7. 그리고 첫째 달에 해가 뜨는 네 번째 문에는 열두 개의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들이 제때 열리면 거기서 불꽃이 나옵니다.
8. 해가 하늘에서 뜰 때, 그는 30 일 동안 매일 아침 그 네 번째 문을 통해 나오고, 하늘 서쪽의 네 번째 문으로 정확히 집니다.
9.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낮의 길이는 매일 길어지고 밤의 길이는 매일 짧아져 30 일째 아침까지 계속됩니다.
10. 그날은 낮이 밤보다 아홉 분의 길이만큼 길고, 낮의 길이는 정확히 십 분이며 밤의 길이는 팔 분이다.
11. 그리고 해는 그 네 번째 문에서 떠올라 네 번째 문으로 지고, 삼십 년마다 동쪽의 다섯 번째 문으로 돌아와 다시 그 문에서 떠올라 다섯 번째 문으로 집니다.
12. 그러면 낮의 길이는 두 배로 길어져 열한 배가 되고, 밤의 길이는 일곱 배가 된다.
13. 그리고 그것은 동쪽으로 돌아가 여섯 번째 문으로 들어가며, 그 표징 때문에 삼십일 아침 동안 여섯 번째 문에서 뜨고 집니다.
14. 그날에는 낮이 밤보다 길어지고, 낮이 밤의 두 배가 되며, 낮이 열두 부분이 되고, 밤은 짧아져 여섯 부분이 된다.
15. 그리고 해가 떠올라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며, 해는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 여섯 번째 문으로 들어가 거기서 떠올라 삼십 일 아침에 진다.
16. 그리고 서른 번의 아침이 지나면 낮의 길이는 정확히 1/3 로 줄어들어 11/3 이 되고, 밤의 길이는 7/3 이 된다.
17. 그리고 해는 서쪽의 여섯 번째 문에서 나와 동쪽으로 가서 삼십 일 동안 다섯 번째 문에서 떠오르고 다시 서쪽의 다섯 번째 문으로 진다.
18. 그날에는 낮이 이분의 이만큼 줄어들어 열분의 이만큼 되고, 밤은 팔분의 이만큼 된다.
19. 그리고 해는 다섯 번째 문에서 나와 서쪽의 다섯 번째 문으로 지고, 그 표징 때문에 삼십일 아침 동안 네 번째 문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집니다.
20. 그날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 밤은 아홉 부분이 되고 낮도 아홉 부분이 된다.
21. 그리고 해는 그 문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지고, 다시 동쪽으로 돌아와 삼십 대 아침에 셋째 문에서 떠올라 셋째 문에서 서쪽으로 집니다.
22. 그날 밤은 낮보다 길어지고, 밤은 밤보다 길어지고, 낮이 낮보다 짧아져서 서른째 아침까지 밤은 정확히 십분의 일, 낮은 팔분의 일이 된다.
23. 그리고 해는 그 셋째 문에서 떠올라 서쪽의 셋째 문으로 지고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며, 삼십 일 동안은 동쪽의 둘째 문으로 떠올라 서쪽의 둘째 문으로 진다.
24. 그날 밤은 열한 부분이고 낮이 일곱 부분이다.
25. 그리고 그날 해는 그 두 번째 문에서 떠올라 서쪽 두 번째 문으로 지고, 삼십일 아침 동안 다시 동쪽 첫 번째 문으로 돌아와 하늘 서쪽 첫 번째 문으로 집니다.
26. 그날 밤은 길어져서 낮의 두 배가 되고, 밤은 정확히 열두 부분이 되고 낮 1 은 여섯 부분이 된다.
27. 그리고 태양은 그 궤도의 각 부분을 통과하여 다시 그 궤도의 각 부분을 따라 돌고, 삼십 분 아침에 그 문으로 들어가 그 문 반대편 서쪽으로 집니다.
28. 그날 밤에는 밤의 길이가 아홉분의 일로 줄어들어 밤은 열한 부분이 되고 낮이 일곱 부분이 되었느니라.
29. 그리고 태양이 돌아와 동쪽의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가 삼십 일 동안 매일 아침 그 궤도를 따라 뜨고 지며 돌아간다.
30. 그날에는 밤의 길이가 짧아져서 밤은 열 부분이 되고 낮이 팔 부분이 된다.
31. 그리고 그날 해는 그 문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지고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서 삼십일 아침 동안 세 번째 문에서 떠올라 하늘의 서쪽으로 진다.
32. 그날 밤은 줄어들어 아홉 부분이 되고, 낮도 아홉 부분이 되어 밤과 낮이 같아지며, 한 해는 정확히 삼백육십사일이 된다.
33. 낮과 밤의 길이의 길이와 낮과 밤의 길이의 짧음은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생겨난다.
34. 그리하여 낮에는 그 흐름이 길어지고 밤에는 짧아지게 된다.
35. 그리고 이것이 태양의 법칙이며 태양의 궤적이니라. 태양은 매년 60 번씩 돌아오고 다시 떠오르니, 곧 영원무궁토록 태양이라 불리는 위대한 광명체이니라.
36. 그리하여 떠오르는 것은 큰 광명체이며,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모양에 따라 그렇게 불립니다.
37. 그는 뜨고 지며, 지고 쉬지 않고 밤낮으로 움직이며, 그 빛은 달보다 일곱 배나 밝지만, 크기는 같습니다.

제 73 장

1. 그리고 이 법칙 다음에 나는 달이라고 불리는 더 작은 천체에 관한 또 다른 법칙을 보았습니다.
2. 그녀의 둘레는 하늘의 둘레와 같고, 그녀가 타고 있는 수레는 바람에 의해 움직이며, 그녀에게는 정해진 양의 빛이 주어진다.
3. 그리고 그 뜨고 지는 것이 매달 바뀌고, 그 낮의 길이는 해의 낮과 같으며, 그 빛이 고르게 비출 때는 해 빛의 7 분의 1 에 해당합니다.
4. 그리하여 달은 떠오릅니다. 동쪽에서 달의 첫 번째 모습은 30 일 아침에 나타납니다. 그날 달은 눈에 보이게 되며, 해가 뜨는 곳에서 태양과 함께 30 일째 되는 날의 첫 번째 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 그리고 그녀의 절반은 7 분의 1 만큼 밖으로 나가 있고, 그녀의 전체 둘레는 빛이 없는 빈 공간이며, 다만 7 분의 1 과 그녀 빛의 14 분의 1 만이 빛으로 가득 차 있다.
6. 그리고 그녀가 자기 빛의 절반의 7 분의 1 을 받으면, 그녀의 빛은 그 절반의 7 분의 1 에 해당합니다.
7. 그리고 달은 해와 함께 지고, 해가 뜰 때 달도 해와 함께 떠올라 빛의 절반을 받으며, 그 밤에는 아침이 시작

될 때, 곧 음력의 날이 시작될 때 달은 해와 함께 지고, 그 밤에는 빛의 14 분의 1 과 절반을 받아 보이지 않게 된다.
8. 그리고 그녀는 그날 정확히 칠 분의 빛으로 떠오르고, 해가 뜨는 곳에서 나왔다가 사라지며, 남은 날 동안 나머지 열세 분의 빛으로 밝아진다.

제 74 장

1. 그리고 나는 또 다른 길, 그녀를 위한 법칙을 보았는데, 그 법칙에 따라 그녀는 매달 생리를 한다.
2.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들 모두의 지도자인 거룩한 천사 우리엘이 내게 보여주었고, 그들의 위치도 알려주었으므로, 나는 그가 내게 보여준 대로 그들의 위치를 기록하고, 그들의 달과 광명체의 모습도 기록하여 열다섯 날이 차도록 하였다.
3. 그녀는 7 분의 1 씩 나누어 동쪽에서 모든 빛을 이루고, 7 분의 1 씩 나누어 서쪽에서 모든 어둠을 이룬다.
4. 그리고 어떤 달에는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달에는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가기도 합니다.
5. 두 달 후면 달이 해와 함께 집니다. 그 가운데 두 개의 문에서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이 열립니다.
6. 그녀는 칠 일 동안 나아가서 돌아서 해가 뜨는 문을 통해 다시 돌아와 모든 빛을 발하고, 해에서 물러나 여덟 일 후에 해가 나가는 여섯 번째 문으로 들어간다.
7. 그리고 태양이 네 번째 문에서 나오면 칠 일 동안 나아가다가 다섯 번째 문에서 나와 다시 칠 일 만에 네 번째 문으로 돌아와 모든 빛을 발하고, 여덟 일 만에 물러나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갑니다.
8. 그리고 그녀는 칠 일 후에 태양이 나오는 네 번째 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9. 그리하여 나는 그 날들의 위치를 알게 되었으니, 달이 뜨고 해가 지는 모습이었다.
10. 그리고 5 년을 모두 더하면 태양은 30 일을 더하게 되고, 그 5 년 중 하루가 보름달이 되면 그 모든 날의 합은 364 일이 됩니다.
11. 해와 별들의 길이가 6 일이나 더 길어지는데, 5 년이면 매년 6 일씩 더해져서 30 일이 됩니다. 그리고 달은 해와 별들보다 30 일이나 뒤쳐집니다.
12. 그리고 해와 별들은 모든 해를 정확하게 가져오므로 영원토록 단 하루도 앞당기거나 늦추지 않고, 완벽한 공평함으로 364 일 만에 모든 해를 채웁니다.
13. 3 년은 1092 일이고, 5 년은 1820 일이므로, 8 년은 2912 일입니다.
14. 달의 주기만 놓고 보면 3 년은 1062 일이고, 5 년은 50 일 뒤쳐진다. [즉, (1770 일의) 합계에 (1000 과) 62 일을 더해야 한다.]
15. 그리고 5 년은 1770 일이므로, 달의 경우 8 년은 2832 일입니다.
16. [그녀가 8 년 동안 뒤처진 날은 80 일이므로] 8 년 동안 뒤처진 날의 총일수는 80 일이다.
17. 그리고 그 해는 그들의 세계 위치와 태양의 위치에 따라 정확하게 완성되는데, 태양은 그 위치들을 통해 뜨고 지며 30 일이 걸립니다.

제 75 장

1. 그리고 온 창조물과 모든 별들을 다스리는 천부장들의 지도자들은 또한 연중 계산에 따라 그들의 직분과 불가분하게 연결된 네 개의 윤일과도 관련이 있으며, 이들은 연중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네 날에 봉사합니다.
2. 그리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이유는, 그 천체들이 세계의 각 위치에서 실제로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늘의 첫 번째 문에, 하나는 세 번째 문에, 하나는 네 번째 문에, 그리고 하나는 여섯 번째 문에 위치하며, 한 해의 정확한 계산은 이 364 개의 각 위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3. 이는 영광의 주께서 하늘의 모든 광명체 위에 영원히 세우신 우리엘 천사가 내게 보여준 징조와 때와 해와 날들 때문이니, 그들이 하늘의 표면을 다스리고 땅에서 보이며 낮과 밤을 인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음이라. 곧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모든 수레를 타고 도는 모든 봉사하는 피조물들이니라.
4. 이와 같이 우리엘은 내게 하늘에 있는 태양 수레의 둘레에 열린 열두 개의 문을 보여주었는데, 그 문을 통해 태양 광선이 쏟아져 나오고, 정해진 때에 그 문들이 열리면 따뜻한 기운이 땅 위로 퍼져 나간다.
5. 그리고 바람과 이슬의 기운이 열려 하늘 끝자락에 나타날 때를 위하여.
6. 하늘에는 땅 끝에 열두 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들을 통해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모든 천체들이 동쪽과 서쪽으로 나온다.
7. 그들의 좌우에는 많은 창문이 열려 있고, 각 창문은 정해진 시기에 따뜻함을 내뿜는데, 이는 마치 별들이 그분께서 명하신 대로 나타나고 그 수에 따라 지는 문과 같습니다.
8. 그리고 내가 보니, 하늘에서 수레들이 세상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는데, 그 문들 안에는 지지 않는 별들이 돌고 있더라.
9. 그리고 하나는 나머지 모든 것보다 더 크며, 바로 그 하나가 온 세상을 관통하며 나아갑니다.

제 76 장

1. 그리고 땅 끝에서 나는 하늘의 모든 방향으로 열려 있는 열두 문을 보았는데, 그 문으로 바람이 나가 땅 위를 불고 있었다.
2. 그중 세 개는 하늘을 향해 열려 있고, 세 개는 서쪽에, 세 개는 하늘의 오른쪽에, 그리고 세 개는 왼쪽에 열려 있다.
3. 그리고 첫 번째 셋은 동쪽에 있고, 세 개는 북쪽에 있으며, 그 뒤에 세 개는 남쪽의 왼쪽에 있고, 세 개는 서쪽에 있습니다.
4. 이 중 네 가지 바람은 복과 번영을 가져오고, 나머지 여덟 가지 바람은 해로운 바람을 가져온다. 이 바람이

불면 온 땅과 그 위의 물, 그리고 그 위에 사는 모든 사람과 물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에 멸망을 가져온다.
5. 그리고 그 문들에서 나오는 첫 번째 바람, 곧 동풍은 동쪽에 있는 첫 번째 문을 통해 남쪽으로 기울어지며 나옵니다. 이 바람에서 황폐함과 가뭄과 더위와 파멸이 나옵니다.
6. 그리고 가운데 있는 두 번째 문을 통해서는 합당한 것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비와 풍요와 번영과 이슬이 내린다. 그리고 북쪽을 향한 세 번째 문을 통해서는 추위와 가뭄이 들어온다.
7. 그리고 그 후에 남풍이 세 개의 문을 통해 들어오는데, 그중 동쪽으로 기울어진 첫 번째 문을 통해서는 뜨거운 바람이 들어온다.
8.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가운데 문을 통해 향기로운 냄새와 이슬과 비, 번영과 건강이 흘러나온다.
9. 그리고 서쪽에 있는 세 번째 문을 통해 이슬과 비, 메뚜기 떼와 황폐함이 쏟아져 나온다.
10. 그 후에 북풍이 불어오는데, 동쪽의 일곱 번째 문에서 이슬과 비, 메뚜기 떼와 황폐함이 들어온다.
11. 그리고 가운데 문에서는 건강과 비와 이슬과 번영이 직접적으로 들어오고, 서쪽의 세 번째 문에서는 구름과 서리, 눈과 비, 이슬과 메뚜기가 들어온다.
12. 그리고 이 네 가지 바람 다음으로는 서풍이 불어오는데, 북쪽과 접한 첫 번째 문을 통해 이슬과 서리, 추위와 눈과 서리가 들어온다.
13. 그리고 가운데 문에서는 이슬과 비, 번영과 축복이 나오고, 남쪽에 인접한 마지막 문에서는 가뭄과 황폐함, 화재와 파괴가 나온다.
14. 이로써 하늘의 네 방향의 열두 문이 완성되었고, 내가 내 아들 므두셀라에게 그 모든 율법과 모든 재앙과 모든 은혜를 보여주었노라.

제 77 장

1. 첫 번째 사분면은 동쪽이라 불리는데, 이는 그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분면은 남쪽이라 불리는데, 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곳으로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영원히 복되신 분께서 아주 특별한 의미에서 그곳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2. 서쪽 사분면은 하늘의 모든 광명체가 약해져 지기 때문에 '약해진 사분면'이라고 불립니다.
3. 그리고 넷째 구역인 북쪽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째 부분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둘째 부분은 바다와 심연과 숲과 강과 어둠과 구름이 있으며, 셋째 부분은 의의 동산이 있다.
4. 내가 보니 일곱 산이 있는데, 땅 위의 모든 산보다 높더라. 거기서 서리가 내리고 날과 계절과 해가 지나가더라.
5. 내가 보니 땅 위에 모든 강보다 큰 강이 일곱 개 있는데, 그중 하나는 서쪽에서 흘러와 큰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6. 그리고 이 두 물줄기는 북쪽에서 바다로 흘러와 동쪽의 에리트라해에 물을 쏟는다.
7. 그리고 나머지 네 무리는 북쪽으로 나와 자기들의 바다로 향하는데, 그중 두 무리는 에리트라해로, 두 무리는 대양으로 가서 거기서 배설물을 배출하고, 어떤 이들은 사막으로 간다고도 한다.
8. 내가 바다와 육지에서 본 일곱 개의 큰 섬을 보았는데, 두 개는 육지에 있고 다섯 개는 대양에 있었다.

제 78 장

1. 그리고 태양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오르자레스이고, 둘째는 토마스입니다.
2. 그리고 달에는 네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아손자(Asônjâ), 두 번째는 에블라(Eblâ), 세 번째는 베나세(Benâsê), 네 번째는 에라에(Erâe)입니다.
3. 이 두 큰 별은 하늘의 둘레와 같고, 그 크기도 같습니다.
4. 태양의 둘레에는 일곱 개의 빛 부분이 있는데, 이 빛 부분은 달보다 더 많이 태양에 더해지며, 일정한 비율로 태양의 일곱 번째 빛 부분이 소진될 때까지 전달됩니다.
5. 그리고 그들은 자리를 잡고 서쪽 문으로 들어가 북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동쪽 문을 통해 하늘로 나온다.
6. 달이 뜰 때 그 14 분의 1 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 빛은 14 일째 되는 날에 완성됩니다.
7. 그리고 빛의 15 분의 1 이 그녀에게 전달되어 15 일째 되는 날, 즉 한 해의 징조에 따라 그녀의 빛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되며, 그녀는 15 분의 1 이 되고, 달은 14 분의 1 씩 더해진다.
8. 그리고 달은 점점 작아지면서 첫째 날에는 빛의 14 분의 1 로, 둘째 날에는 13 분의 1 로, 셋째 날에는 12 분의 1 로, 넷째 날에는 11 분의 1 로, 다섯째 날에는 10 분의 1 로, 여섯째 날에는 9 분의 1 로, 일곱째 날에는 8 분의 1 로, 여덟째 날에는 7 분의 1 로, 아홉째 날에는 6 분의 1 로, 열째 날에는 5 분의 1 로, 열한째 날에는 4 분의 1 로, 열두째 날에는 3 분의 1 로, 열세째 날에는 2 분의 1 로 줄어들고, 열다섯째 날에는 남은 빛이 완전히 사라진다.
9. 그리고 어떤 달은 29 일이고, 어떤 달은 28 일입니다.
10. 그리고 우리엘은 내게 또 다른 법칙을 보여주었다. 빛이 달로 전달될 때, 그리고 태양에서 어느 쪽으로 빛이 전달되는지에 대한 법칙이었다.
11. 달이 점점 밝아지는 기간 동안, 달은 그 빛을 스스로에게 전달하는데, 태양과 반대편에 위치하는 14 일 동안은 달의 빛이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달이 완전히 밝아지면 그 빛은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
12. 그리고 첫째 날에는 그것을 초승달이라 부르는데, 그 날에 빛이 그녀에게 떠오르기 때문이다.
13. 그녀는 해가 서쪽으로 지는 바로 그날 보름달이 되고, 밤에는 동쪽에서 떠오르며, 해가 떠서 달이 해를 배경으로 보일 때까지 밤새도록 빛을 발합니다.
14. 달빛이 비추는 쪽에서는 달이 다시 기울어지다가 마침내 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한 달의 모든 날이 끝나며, 그 둘레는 빛이 없는 텅 빈 공간이 된다.

15. 그리고 그녀는 삼십일로 이루어진 석 달을 보내고, 그녀의 시기에는 이십구일로 이루어진 석 달을 보내는데, 이 기간 동안 그녀는 첫 번째 기간과 첫 번째 기간 동안 177 일 동안 쇠퇴를 이룬다.
16. 그리고 그녀가 외출하는 동안에는 30 일씩 3 개월 동안 나타나고, 29 일씩 3 개월 동안은 나타난다.
17. 그녀는 밤에는 20 일 동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낮에는 하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녀에게는 빛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제 79 장

1.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으니, 하늘의 모든 별들의 법칙이 완성되었다.
2. 그리고 그분은 내게 이 모든 율법을 날마다, 계절마다, 그리고 해마다, 그 시작과 매달, 매주 정해지는 규칙들을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3. 그리고 여섯 번째 문에서 일어나는 달의 쇠퇴: 이 여섯 번째 문에서 달의 빛이 완성되고, 그 후에 달이 쇠퇴하기 시작한다.
4. 그리고 첫 번째 문에서 그 시기에 일어나는 쇠퇴는 177 일이 될 때까지 계속되는데, 주 단위로 계산하면 25 주 2 일입니다.
5. 그녀는 한 주기 동안 정확히 5 일마다 태양과 별들의 순서보다 뒤쳐지며, 네가 보는 이 장소를 지나쳤을 때 그렇게 된다.
6. 이것은 그들의 지도자인 대천사 우리엘이 내게 보여준 모든 별들의 모습과 개략도이다.

제 80 장

1. 그 무렵 천사 우리엘이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모든 것을 계시하였으니, 에녹아 너는 이 해와 이 달, 그리고 하늘의 별들의 지도자들과 그것들을 움직이는 모든 것들, 그들의 임무와 시간, 그리고 떠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느니라.'
2. 죄인들의 날에는 해가 짧아지고 그들의 씨앗은 그들의 땅과 밭에서 더디게 자라며 땅 위의 모든 것이 변하여 제때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이 그것을 막을 것이다.
3. 그 때에는 땅의 소산물이 자라지 못하고 제때 자라지 못하며 나무의 열매도 제때 맺지 못할 것이다.
4. 그리고 달은 그 모습을 바꾸어 제때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5. 그 날에는 해가 보일 것이며, 그분은 저녁에 큰 수레의 끝자락을 타고 서쪽으로 가실 것이며, 빛의 질서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밝게 빛나실 것이다.
6. 그리고 많은 별들의 우두머리들이 정해진 질서를 어길 것이며, 그들은 궤도와 임무를 바꾸고, 정해진 시기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7. 그리하여 별들의 모든 질서가 죄인들에게서 감추어질 것이며, 땅 위의 자들은 그것들에 대하여 잘못 생각할 것이며, 그들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참으로 그들은 잘못 생각하여 그것들을 신으로 여길 것이다.
8. 그들에게 재앙이 더욱 거세지고, 형벌이 임하여 그들이 모두 멸망할 것이다.

제 81 장

1. 그리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에녹아, 이 하늘의 석판들을 잘 살펴보고 그 위에 기록된 것을 읽고 각각의 사실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라.'
2. 그리고 나는 하늘의 석판들을 살펴보고 그 위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읽고 이해했으며, 인류의 모든 행위와 땅 위에 있을 모든 육신의 자녀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을 가장 먼 세대까지 읽었다.
3. 그리고 나는 곧바로 영원토록 영광의 왕이신 위대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찬양하고, 사람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4. 그리고 나서 내가 말했습니다. '의롭고 선하게 죽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에 대하여는 불의한 책이 기록되지 아니하고 심판의 날도 없을 것이다.'
5. 그리고 그 일곱 거룩한 자들이 나를 데려다가 내 집 문 앞 땅에 내려놓고 내게 이르되 네 아들 므두셀라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하고 네 모든 자녀에게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그분은 그들의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라.
6. 우리가 일 년 동안 너를 네 아들과 함께 남겨 두겠다. 네가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까지, 네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기록하여 모든 자녀에게 증언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듬해에 그들이 너를 그들 가운데서 데려갈 것이다.
7. 마음을 굳게 하라. 선한 자는 선한 자에게 의로움을 알리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와 함께 기뻐하며 서로 축하할 것이다.
8. 그러나 죄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죽고, 배교자들은 배교자들과 함께 망할 것이다.
9. 의를 행하는 자도 사람의 행위 때문에 죽고, 악인의 행위 때문에 사라질 것이다.
10. 그 무렵 그들은 내게 말을 걸지 않았고,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 세상의 주님을 찬양하였다.

제 82 장

1. 이제 내 아들 므두셀라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야기하고 기록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계시했고, 이 모든 것에 관한 책들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 내 아들 므두셀라야, 네 아버지의 손에서 이 책들을 잘 보존하고, 세상 모든 세대에 전하도록 하라.
2.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그리고 네게서 나올 네 자손에게 지혜를 주었으니, 그들이 대대로 그들의 자손에게 지혜를 전하게 하려 함이니, 이 지혜는 곧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지혜이니라.

3.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잠들지 아니하고 귀 기울여 이 지혜를 배우리니, 이 지혜는 먹는 자에게 좋은 음식보다 더 큰 기쁨을 줄 것이다.
4. 의로운 자는 모두 복이 있나니, 의의 길을 행하며 죄인들처럼 죄를 짓지 않는 자는 모두 복이 있나니, 해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든 날을 계산할 때에, 수천 개의 별들의 머리가 삼십 일 동안 문을 드나들며, 그 사이에 있는 윤달 네 개가 일 년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나흘 동안 그들과 함께 들어가고 들어가느니라.
5.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잘못을 범하여 한 해의 모든 계산에서 그들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그들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6. 이는 그것들이 한 해의 계산에 속하고 그 위에 영원히 참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니, 하나는 첫 번째 문에, 하나는 세 번째 문에, 하나는 네 번째 문에, 하나는 여섯 번째 문에 있으며, 한 해는 삼백육십사일로 완성된다.
7. 그리고 그에 대한 기록은 정확하고 기록된 계산도 정확하니, 이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복종시키신 우리엘이 내게 광명체와 달과 절기, 해와 날들을 보여주고 계시하였음이라.
8.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서 밤과 낮을 다스리시는 권능을 가지셔서 빛을 내어 사람들을 비추게 하시니 곧 해와 달과 별과 그 모든 하늘의 권능들이 그 원형 수레를 타고 돌게 하시는 것입니다.
9. 이것들은 별들의 순서인데, 별들은 제자리에, 제 계절과 절기와 달에 따라 집니다.
10. 그리고 이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그들이 정해진 때와 순서와 계절과 달과 통치 기간과 직책에 따라 들어가도록 감독하는 자들이다.
11. 1 년을 네 부분으로 나누는 네 명의 지도자가 먼저 들어가고, 그 뒤를 이어 월을 나누는 열두 계급의 지도자들이 들어가며, 삼백육십일에는 날짜를 나누는 천 명의 우두머리들이 들어가고, 윤일인 네 날에는 1 년을 네 부분으로 나누는 지도자들이 들어간다.
12. 그리고 수천 명을 다스리는 이 우두머리들은 지도자들 사이에 끼어들어 각자의 자리 뒤에 서 있지만, 그들의 지도자들이 분할을 합니다. 정해진 대로 한 해를 네 부분으로 나누는 지도자들의 이름은 밀키엘, 헬렘멜렉, 멜레잘, 그리고 나렐입니다.
13.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자들의 이름은 아드나르엘, 이자수사엘, 엘로메엘입니다. 이 세 사람은 각 무리의 지도자들을 따릅니다.
14. 그리고 1 년을 네 부분으로 나누는 각 구역의 지도자들을 따르는 세 명의 지도자를 따르는 자가 하나 있다.
15. 새해 초에 멜케얄이 먼저 떠올라 통치하는데, 그의 이름은 타마이니이며 태양이다. 그가 통치하는 모든 날은 91 일이다.
16. 그의 통치 시대에 땅에서 볼 수 있는 그 날의 징조는 이러하니라. 땀과 더위와 고요함이요, 모든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잎이 나며 밀이 소출되고 장미꽃과 들판에 피는 모든 꽃이 만발할 것이요, 겨울철 나무는 시들리라.
17. 그리고 그들 아래 있는 지도자들의 이름은 베르카엘, 젤렙스엘, 그리고 천 명의 우두머리로 추가된 또 다른 사람인 힐루야세프라는 사람이니, 이 지도자의 통치 시대는 끝났다.
18. 그 다음 지도자는 빛나는 태양이라 불리는 헬렘멜렉이며, 그의 빛의 모든 날은 아흔일 일이다.
19. 그가 다스리시는 날에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뜨거운 열기와 건조함이 찾아오고, 나무들은 열매를 맺어 모든 열매가 익고, 양들은 짝짓기를 하여 임신하고, 땅의 모든 소출이 거두어지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거둬들여지고, 포도주 틀도 다 쓰일 것이다. 이런 일들이 그의 통치 기간에 일어날 것이다.
20. 이들은 천부장들의 이름과 직책과 지도자들이니 곧 기다잘, 케엘, 헤엘이요, 그 위에 더해진 천부장의 이름은 아스팔이라. 그의 통치 시대는 끝났도다.

제 83 장

1. 이제 내 아들 므두셀라야, 내가 본 모든 환상을 너에게 보여주고, 그것들을 네 앞에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겠다.
2. 내가 아내를 맞이하기 전에 두 가지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는 다른 하나와 전혀 달랐다. 첫 번째는 내가 글쓰기를 배우던 때였고, 두 번째는 네 어머니를 맞이하기 전에 본 끔찍한 환상이었다. 나는 그 환상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했다.
3. 내가 할아버지 마할랄렐의 집에 누워 있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으로 떨어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4. 그리고 그것이 땅에 떨어졌을 때, 나는 땅이 큰 심연 속으로 삼켜지는 것을 보았고, 산들은 산 위에 떠 있고, 언덕들은 언덕 위에 가라앉고, 높은 나무들은 그 줄기에서 뜯겨져 심연 속으로 내던져져 가라앉는 것을 보았다.
5. 그러자 내 입에 한 말씀이 떠올라 내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땅이 멸망하였도다' 하였더라.
6. 그리고 나의 할아버지 마할랄렐께서 내가 그분 곁에 누워 있을 때 나를 깨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그렇게 울며 애통하느냐?'
7. 내가 그에게 내가 본 모든 환상을 이야기하니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네가 본 것은 무서운 것이요, 세상 모든 죄악의 비밀에 관한 중대한 꿈이니, 그것은 심연으로 떨어져 큰 멸망으로 소멸될 것이다.'
8. 이제 내 아들아, 일어나서 믿는 자이니 영광의 주님께 간구하여 땅에 남은 자가 남게 하시고 온 땅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9. 내 아들아,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것이며, 땅에는 큰 파괴가 있을 것이다.
10. 그 후에 내가 일어나 기도하고 간청하고 애원하여 세상 모든 세대를 위하여 내 기도를 기록하였으니, 내 아들 므두셀라야,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11. 내가 아래로 내려가 하늘을 보니 해가 동쪽에서 뜨고 달이 서쪽으로 지고 별들이 몇 개 보이고 온 땅과 그분께서 태초에 아시던 모든 것이 다 있더라. 내가 심판

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 드렸으니 이는 그분께서 해를 동쪽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늘로 떠오르게 하시며 그분께 보여주신 길을 따라 나아가게 하셨음이라.

제 84 장

1. 그리고 나는 의로움으로 손을 들어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을 찬양하며 내 입의 숨결과 살의 혀로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만드신 살의 자녀들이 말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숨결과 혀와 입을 주셔서 말하게 하셨느니라.
2. '주여,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주여, 하늘의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시는 주,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여, 찬양받으소서. 주의 권능과 왕권과 위대하심이 영원무궁토록 ...
3.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주님께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혜는 주님의 보좌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의 임재에서 돌아서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니,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므로 주님께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4. 이제 주의 하늘의 천사들이 죄를 지었으니, 주의 진노가 큰 심판의 날까지 사람의 육신 위에 머물러 있도다.
5. 이제, 오 하나님, 주님, 위대하신 왕이시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에 저의 후손을 남겨 주시옵소서.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지 마시고, 땅에 사람이 살지 않게 하여 영원한 멸망이 오게 하지 마시옵소서.
6. 주님, 이제 주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육체를 땅에서 멸하시고, 의와 정직의 육체를 영원한 씨앗의 나무처럼 세우소서. 그리고 주님의 종의 기도에서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제 85 장

1. 그 후에 나는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 내 아들아, 내가 그 꿈 전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2. 에녹이 목소리를 높여 아들 므두셀라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네 아버지의 꿈과 환상에 귀 기울여라.'
3. 내가 너의 어머니 에드나를 데려가기 전에, 침상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보라, 땅에서 수소 한 마리가 나왔는데 그 수소는 흰색이었다. 그 후에 암소 한 마리가 나왔고, 그 암소와 함께 수소 두 마리가 나왔는데, 하나는 검은색이고 다른 하나는 붉은색이었다.
4. 그러자 검은 황소가 붉은 황소를 들이받고 땅 위로 쫓아갔고,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붉은 황소를 볼 수 없었다.
5. 그러나 그 검은 황소는 점점 자랐고, 그 암소는 그와 함께 갔으며, 나는 그와 비슷하게 생긴 많은 소들이 그에게서 나와 그를 따르는 것을 보았다.
6. 그리고 그 암소, 곧 첫째 암소는 첫째 수소를 떠나 붉은 수소를 찾아 나섰으나 찾지 못하고 크게 슬피 울며 그를 찾아 헤맸다.
7. 그리고 나는 첫 번째 황소가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를 진정시킬 때까지 지켜보았고, 그때부터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8. 그 후에 그녀는 또 다른 흰 수소를 낳았고, 그 후로 많은 수소와 검은 암소를 낳았습니다.
9. 그리고 내가 꿈에서 보니 그 흰 황소도 자라서 큰 흰 황소가 되었고, 그로부터 많은 흰 황소들이 나왔는데, 그 황소들은 그 황소를 닮았더라. 그 황소들은 또 많은 흰 황소들을 낳았는데, 그 황소들은 그 황소들을 닮았고, 그 수가 매우 많았더라.

제 86 장

1. 그리고 내가 잠자는 동안 다시 내 눈으로 보니, 하늘 위에 별 하나가 떨어져서 올라가 소들 사이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었다.
2. 그 후에 내가 보니 큰 소와 검은 소가 모두 자기들의 외양간과 목초지와 가축들을 바꾸어 함께 살기 시작하였더라.
3. 그리고 또 내가 환상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니, 보라, 많은 별들이 내려와 하늘에서 그 첫째 별로 모여들어 소떼 가운데서 황소가 되어 그들과 함께 풀을 뜯는 것을 보았더라.
4. 내가 보니 그들이 다 말처럼 음부를 내어 암소와 소를 덮기 시작하여 다 임신하여 코끼리와 낙타와 나귀를 낳았더라.
5. 그러자 모든 소들이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이빨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뿔로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6. 그리고 그들은 그 소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온 땅의 자녀들이 그들 앞에서 떨며 도망쳤습니다.

제 87 장

1. 그리고 나는 그들이 서로를 들이받고 잡아먹기 시작하는 것을 다시 보았고, 땅이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다.
2. 내가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늘에서 흰 사람과 같은 존재들이 나왔는데, 네 명이 그곳에서 나갔고 세 명이 그들과 함께 나갔다.
3.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그 세 사람이 내 손을 잡고 나를 데리고 땅의 세대들과 구별하여 높이 올려 보내어 땅 위에 높이 솟은 망대를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망대 위에는 모든 산들이 낮게 서 있었다.
4. 그러자 어떤 사람이 내게 이르되 '코끼리와 낙타와 나귀와 별과 소와 그 모든 것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볼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였더라.

제 88 장

1. 그리고 내가 보니 먼저 나온 네 사람 중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진 첫째 별을 붙잡아 손발을 묶어 심연에 던져 넣었는데, 그 심연은 좁고 깊고 무섭고 어두웠습니다.
2.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이 칼을 뽑아 코끼리와 낙타와 나귀들에게 주니, 그들이 서로 치기 시작하매 그로 말미암아 온 땅이 진동하였다.
3. 내가 그 환상을 보니, 나와 있던 네 사람 중 하나가 하늘에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고, 그 음부가 말의 음부와 같은 큰 별들을 모두 모아 손발을 묶어 땅속 깊은 곳에 던져 버렸습니다.

제 89 장

1. 그리고 그 넷 중 하나가 그 흰 황소에게 가서 두려움 없이 비밀을 가르쳐 주었으니, 그는 황소로 태어나 사람이 되어 큰 그릇을 짓고 그 위에 거하였더라. 그리고 세 마리의 황소가 그와 함께 그 그릇 안에 거하였더라.
2. 그리고 다시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높은 지붕 위에 일곱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 물줄기들이 많은 물을 모아 울타리 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3. 내가 다시 보니, 그 큰 울타리 표면에서 샘들이 솟아나고 물이 부풀어 올라 표면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그 울타리의 모든 표면이 물로 덮이는 것을 보았다.
4. 그리고 물과 어둠과 안개가 그 위에 더욱 짙어졌습니다. 내가 그 물의 높이를 보니, 그 물은 울타리의 높이를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 흘러넘쳐 땅 위에 고여 있었습니다.
5. 그리고 그 울타리 안의 모든 가축들이 한데 모였는데, 내가 보니 그것들이 물에 가라앉아 삼켜져 죽어 버렸습니다.
6. 그러나 그 배는 물 위에 떠 있었고, 소와 코끼리와 낙타와 나귀는 모두 물속으로 가라앉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칠 수도 없었고,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아 죽었습니다.
7. 그리고 나는 다시 그 환상 속에서 높은 지붕에서 쏟아지던 물줄기가 사라지고, 땅의 틈들이 평평해지고, 다른 심연들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8. 그러자 물이 그 안으로 흘러내려 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은 땅 위에 가라앉았고,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나타났습니다.
9. 그러나 사람이 된 그 흰 황소가 그 그릇에서 나왔는데, 그와 함께 세 마리의 황소도 나왔습니다. 그 세 마리 중 하나는 그 황소처럼 희었고, 하나는 피처럼 붉었고, 하나는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흰 황소는 그들 곁을 떠났습니다.

10-27. 노아의 죽음부터 출애굽까지.

10. 그리고 그들은 들짐승과 새를 낳기 시작하여 사자, 호랑이, 늑대, 개, 하이에나, 멧돼지, 여우, 다람쥐, 돼지, 매, 독수리, 솔개, 매, 까마귀 등 여러 종류가 생겨났고, 그중에서 흰 황소가 태어났다.
11. 그러자 그들은 서로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흰 황소가 산나귀 한 마리와 그 산나귀와 흰 황소 한 마리를 낳았고, 그 산나귀들은 번성했습니다.
12. 그러나 그 수소는 검은 멧돼지와 흰 양을 낳았는데, 검은 멧돼지는 많은 새끼를 낳았고 흰 양은 열두 마리의 양을 낳았습니다.
13. 그 열두 양이 장성했을 때, 그들은 그중 한 마리를 나귀에게 넘겨주었고, 나귀는 그 양을 다시 늑대에게 넘겨주었으며, 그 양은 늑대들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14. 주님께서 그 열한 마리 양을 데려다가 늑대들과 함께 살게 하시고 늑대들 사이에서 풀을 뜯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양들이 번성하여 많은 양 떼가 되었습니다.
15. 그러자 늑대들이 그 양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여, 새끼들을 잡아먹고 큰 물이 있는 강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양들은 새끼들 때문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16. 늑대에게서 구원받은 한 양이 도망쳐 나귀 떼에게로 갔습니다. 나는 그 양들이 얼마나 슬피 울며 온 힘을 다해 주님께 간구하는지 보았습니다. 마침내 양의 주님께서 그 양들의 소리를 듣고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그 양들을 돌보셨습니다.
17. 그리고 예수께서 늑대들을 피해 도망친 그 양을 불러 모으시고, 늑대들이 양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셨다.
18. 그 양은 주님의 말씀대로 늑대들에게로 갔는데, 다른 양 한 마리가 그 양과 만나 함께 갔다. 그 둘이 함께 늑대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이야기하며 앞으로는 양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19. 그때 나는 늑대들이 온 힘을 다해 양들을 몹시 괴롭히는 것을 보았고, 양들은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20. 여호와께서 양 떼에게 이르시니 양들이 늑대들을 치기 시작하였다. 늑대들이 울부짖기 시작하였더니 양들은 잠잠해지고 울부짖는 것을 그쳤다.
21. 내가 보니 양들이 늑대들 사이에서 떠나가는데, 늑대들의 눈이 멀어서 그 늑대들이 온 힘을 다해 양들을 쫓아갔다.
22. 양들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들의 지도자로서 그들과 함께 가셨고, 그분의 모든 양들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눈부시게 빛나고 영광스러우면서도 두려운 모습이었습니다.
23. 그러나 늑대들은 그 양들을 쫓아 바다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4. 그러자 바다가 갈라져서 물이 그들 앞의 이쪽과 저쪽에 이르렀고, 그들의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늑대들 사이에 자신을 두셨다.
25. 그 늑대들이 아직 양들을 보지 못하여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고, 늑대들이 양들을 뒤쫓아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다.
26. 그들이 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 앞에서 도망치려 하였으나, 그 바다가 모여 창조된 그대로 되었고, 물이 불어나서 그 늑대들을 덮었다.

27. 내가 보니 그 양 떼를 쫓던 모든 늑대들이 다 죽어 물에 빠져 죽더라.

28-40. 광야의 이스라엘, 율법 수여, 팔레스타인 입성.

28. 그러나 양들은 그 물에서 도망쳐 나와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눈을 뜨고 보기 시작하니, 내가 보니 양의 주인이 그들을 돌보시며 물과 풀을 주시고, 또 그 양들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29. 그 양이 그 높은 바위 꼭대기로 올라가니, 양의 주인이 그 양을 그들에게 돌려주셨다.
30. 그 후에 내가 보니 양들의 주인이 그들 앞에 서 계시는데, 그분의 모습이 크고 두렵고 위엄이 넘치시더라. 모든 양들이 그분을 보고 그분의 얼굴 앞에서 두려워하였더라.
31.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그분 때문에 두려워 떨며, 그들 가운데 있던 양 한 마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분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32.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던 그 양은 다시 그 바위 꼭대기로 올라갔으나, 그 양은 눈이 멀어 그가 인도해 준 길에서 벗어나 헤매기 시작하였으나, 그 양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33. 그러자 양의 주인이 그들에게 심히 노하셨고, 양들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바위 꼭대기에서 내려와 양들에게 이르러 보니, 대부분의 양들이 눈이 멀고 쓰러져 있었다.
34. 그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자기들의 우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였다.
35. 그러자 그 양이 다른 양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에서 떨어져 나간 양들에게 이르러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양들은 그 양을 두려워하여, 그 양이 떨어져 나간 양들을 다시 우리로 데려왔습니다.
36. 그리고 내가 이 환상에서 보니 그 양이 사람이 되어 양의 주인을 위하여 집을 짓고 그 집에 모든 양을 두더라.
37. 내가 보니 그 양들을 인도하던 양을 만나던 그 양이 잠들고, 큰 양들은 다 죽고 작은 양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 목초지에 이르러 시냇가에 이르렀더라.
38. 그때 그 양 떼의 우두머리였던 사람이 된 그 양이 무리에서 물러나 잠이 들었고, 모든 양 떼가 그 양을 찾아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39. 내가 보니 그들이 그 양을 부르짖는 것을 그치고 그 시냇물을 건너는데, 그때에 앞서 그들을 인도하다가 잠들었던 양들을 대신하여 두 마리 양이 지도자처럼 나타났습니다.
40. 내가 보니 양 떼가 아름다운 곳, 즐겁고 영광스러운 땅에 이르렀고, 그 양 떼가 배불리 먹었더라. 그 아름다운 땅 가운데에 그 집이 서 있었더라.

41-50 장. 사사 시대부터 성전 건축까지.

41.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눈이 뜨이고 때로는 눈이 멀었더니, 다른 양이 일어나 그들을 인도하여 모두 데려오니 그들의 눈이 다시 떠졌다.
42. 그러자 개와 여우와 멧돼지가 그 양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양들의 주인이 그들 가운데서 다른 양, 곧 숫양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43. 그러자 그 숫양은 개와 여우와 멧돼지들을 양쪽으로 들이받아 모두 죽였다.
44. 그리고 눈을 뜬 그 양은 양 떼 가운데 있던 그 숫양을 보았는데, 그 숫양은 그 위엄을 버리고 양 떼를 들이받고 짓밟으며 비열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45. 그리고 양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어린 양을 다른 어린 양에게 보내셔서 그 어린 양을 숫양으로 세우시고, 그 숫양은 영광을 버린 그 숫양 대신에 양 떼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46. 그러자 그 개는 그 양에게 가서 홀로 말하여 그 양을 숫양으로 세우고 양 떼의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동안에 그 개들은 양 떼를 괴롭혔습니다.
47. 그러자 첫째 숫양이 둘째 숫양을 뒤쫓았고, 둘째 숫양은 일어나서 그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나는 그 개들이 첫째 숫양을 덮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48. 그러자 둘째 숫양이 일어나 어린 양들을 이끌었다.
49. 그 양들은 번성하여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개와 여우와 멧돼지는 그 양들을 두려워하여 도망쳤습니다. 그 숫양은 뿔로 들이받아 그 들짐승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그 들짐승들은 더 이상 양 떼 가운데서 아무런 힘도 행사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훔쳐 먹지 못했습니다. 그 숫양은 많은 양을 낳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하나가 그 숫양을 대신하여 숫양이 되어 그 양 떼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50. 그 집은 크고 넓어졌으며, 그 양들을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그 집 위에 높고 큰 망대가 세워졌는데, 그 집은 낮았지만 망대는 높고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양들의 주인이 그 망대 위에 서 계시니, 그들이 그분 앞에 풍성한 상을 드렸습니다.

51-67 장. 이스라엘과 유다 두 왕국,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51. 또 내가 보니 그 양들이 또 길을 잃고 여러 길로 흩어져 집을 버리고 갔더라. 양들의 주인이 양들 중에서 몇 명을 불러 자기 양들에게 보냈으나 양들이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였더라.
52. 그중 한 마리가 살아남아 죽지 않고 달려가 양 떼를 향해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새를 죽이려 했으나, 양들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새를 양 떼에게서 구원하시고 내게로 데려오셔서 그곳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53. 그리고 그분은 그 양들에게 증언하고 그들을 위해 슬퍼하게 하시려고 많은 다른 양들을 그 양들에게 보내셨습니다.
54.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보니 그들이 여호와의 집과 그의 망대를 버리고 떠나니 완전히 타락하여 그들의 눈이

멀었더라. 또 내가 보니 양들의 주께서 그들의 양 떼 가운데서 많은 학살을 행하셨으니, 그 양들이 그 학살을 자초하여 그의 처소를 배신하였더라.
55. 그리고 그분은 그 양들을 사자와 호랑이와 늑대와 하이에나와 여우와 모든 들짐승의 손에 넘겨주셨고, 그 들짐승들은 그 양들을 갈기갈기 찢어발기기 시작했습니다.
56. 그리고 내가 보니 그분은 그들의 집과 망대를 버리시고 그들을 모두 사자의 손에 넘겨주셔서 찢기고 삼키게 하셨으며, 모든 들짐승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57. 그래서 나는 온 힘을 다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양들이 모든 들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그분께 아뢰었습니다.
58.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도 미동도 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이 잡아먹히고 삼켜지고 빼앗기는 것을 기뻐하시고는 그들을 모든 짐승의 손에 잡아먹히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59. 그리고 예수께서 칠십 명의 목자를 불러 그 양들을 그들에게 맡겨 돌보게 하시고 목자들과 그들의 동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 각 사람은 양들을 돌보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행하라."
60. 내가 그 양들을 정확하게 계수하여 너희에게 넘겨주고, 그중에서 멸망시킬 양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너희는 그 양들을 멸망시켜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 양들을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61. 그리고 예수께서 다른 사람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들이 그 양들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잘 살펴보아라. 내가 명령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그들이 죽일 것이다."
62. 그리고 목자들을 통해 일어날 모든 과도함과 파괴를 기록하라. 곧 그들이 내 명령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그리고 자기들의 변덕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기록하라. 각 목자가 행한 모든 파괴를 각 개인에 대하여 기록하라.
63.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양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양을 넘겨주어 죽였는지 내 앞에서 숫자로 읽어 주어라. 그리하여 내가 이것을 그들에 대한 증거로 삼고, 목자들의 모든 행위를 알고, 그들이 내가 명한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려 함이다.
64.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너는 그들에게 알리지도 말고, 훈계하지도 말라. 다만 목자들이 각자 자기 때에 저지른 모든 파괴 행위를 각 사람에 대하여 기록하여 내게 제출하라."
65. 내가 보니 그 목자들이 제때에 양을 치기 시작했는데, 명령받은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죽이고 죽이기 시작하여 그 양들을 사자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66. 사자와 호랑이가 그 양 떼의 대부분을 먹어치웠고, 멧돼지도 함께 먹어치웠으며, 그 망대는 불태워지고 그 집은 허물어졌다.
67. 그리고 나는 그 탑 때문에 몹시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 우리(양의 집)가 무너졌고, 그 후로 나는 그 양들이 그 집에 들어갔는지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68-71. 천사 통치자들의 첫 번째 시대 - 예루살렘의 멸망부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때까지.

68. 그리고 목자들과 그들의 동료들은 그 양들을 모든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어 잡아먹게 하였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맡은 때에 정해진 수의 양을 잡았고, 그 수를 책에 기록했습니다.
69. 그러자 그들 각자는 정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죽이고 멸망시켰습니다. 나는 그 양들 때문에 울며 슬퍼하기 시작했습니다.
70. 이와 같이 내가 환상에서 보니, 기록하는 자가 그 목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을 날마다 기록하고, 그 책 전체를 가져다가 양들의 주님께 보여주었는데, 그들이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없애 버린 모든 것, 그리고 그들이 멸망에 넘겨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71. 그리고 그 책은 양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읽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손에서 그 책을 받아 읽으시고 봉인하신 후 내려놓으셨습니다.

72-77 년. 제 2 기 - 키루스 시대부터 알렉산더 대왕 시대까지.

72. 그러자 내가 보니 목자들이 12 시간 동안 양 떼를 치는데, 양 세 마리가 돌아와서 그 집에 들어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멧돼지들이 그들을 막으려 했으나,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73. 그들은 이전처럼 다시 건축을 시작하여 그 탑을 세웠는데, 그 탑은 높은 탑이라 불렸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탑 앞에 상을 차렸는데, 그 위에 놓인 모든 빵은 부정한 것이어서 정결하지 않았다.
74. 이 모든 일에 관하여 그 양들의 눈이 멀어 보지 못하게 되었고, 목자들의 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 양들을 많이 목자들에게 넘겨주어 죽이게 하였습니다. 목자들은 그 양들을 발로 밟고 잡아먹었습니다.
75. 양들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모든 양들이 들판에 흩어져 짐승들과 섞일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으셨고, 그들은 양들을 짐승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셨습니다.
76. 그리고 그 책을 쓴 사람이 그 책을 가지고 올라가서 양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보여드리고 읽어 드리며, 목자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보여 드리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그들을 위하여 간청하고, 모든 목자들을 책망하며 하나님 앞에 증언하였다.
77. 그러자 그는 그 책을 가져다가 예수님 곁에 내려놓고 떠났다.

제 90 장

1-5. 제 3 시대 - 알렉산더 대왕부터 그리스-시리아 지배 시대까지.

1. 그리고 내가 보니 이와 같이 서른다섯 명의 목자가 양 떼를 돌보는 일을 맡았는데, 그들은 모두 처음 목자

들처럼 각자 자기 임기를 마쳤고, 다른 목자들이 그 양 떼를 맡아 자기 임기 동안 돌보았더라.
2. 그 후에 내가 환상에서 보니 하늘의 모든 새들이 몰려오는데, 독수리, 콘도르, 솔개, 까마귀들이었다. 그중 독수리가 앞장서서 그 양들을 잡아먹기 시작했는데, 눈을 파내고 살을 발라 먹었다.
3. 양들이 새들에게 살점이 뜯어 먹히자 울부짖었더라. 나는 잠결에 그 양 떼를 치던 목자를 보고 슬퍼하였더라.
4. 내가 보니 그 양들이 개와 독수리와 솔개에게 잡아먹혀 살점도 가죽도 힘줄도 남지 않고 뼈만 남았는데 그 뼈마저 땅에 떨어져 양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더라.
5. 그리고 내가 보니 스물세 명이 목축을 맡아 각자의 기간 동안 쉰여덟 번을 마쳤다.

6-12. 제 4 시대 - 그리스-시리아 지배에서 마카베오 반란까지.

6. 그런데 보십시오, 그 흰 양들이 어린 양들을 데리고 와서 눈을 뜨고 보기 시작하며 그 양들에게 부르짖었습니다.
7. 그들이 부르짖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귀가 먹먹하고 눈이 몹시 멀어 있었습니다.
8. 그리고 내가 환상에서 보니 까마귀들이 어린 양들 위로 날아올라 한 마리를 잡아먹고 나머지 양들을 갈기갈기 찢어 먹어 버렸다.
9. 내가 보니 어린 양들에게 뿔이 돋아나고 까마귀들이 뿔을 떨어뜨리고, 양 한 마리에서 큰 뿔이 돋아나고 눈이 열리는 것이요.
10. 그러자 그것이 그들을 바라보니 그들의 눈이 떠졌고, 그것이 양들에게 소리치니 숫양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달려갔다.
11. 그런데도 독수리와 콘도르와 까마귀와 솔개는 계속해서 양들을 뜯어먹고 덮쳐 잡아먹었습니다. 양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지만, 숫양들은 슬피 울부짖었습니다.
12. 그러자 까마귀들이 그것과 싸우고 그 뿔을 꺾으려 했으나, 어찌할 수 없었느니라.

13-19 장. 이방인의 유대인에 대한 마지막 공격 (13-15 장과 16-18 장은 동일한 내용임).

13. 내가 보니 목자들과 독수리들과 콘도르와 솔개들이 와서 까마귀들에게 그 숫양의 뿔을 꺾으라고 외치며 싸우고, 그 숫양도 그들과 싸우며 도와달라고 외쳤다.
14. 그리고 내가 보니 목자들의 이름을 적어서 양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올려 보낸 그 사람이 와서 그 숫양을 도와주고 모든 것을 보여주었더라. 그는 그 숫양을 도우려고 내려온 것이었더라.
15. 내가 보니 양들의 주인이 진노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매 그를 본 자는 다 도망하여 그의 얼굴 앞에서 그의 그늘 아래로 엎드렸다.
16. 모든 독수리와 콘도르와 까마귀와 솔개가 한데 모였고, 들판의 모든 양들도 그들과 함께 와서, 참으로 그들이 모두 함께 모여 서로 도와 숫양의 뿔을 부러뜨렸습니다.
17. 그리고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책을 기록하는 그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마지막 열두 목자들이 행한 파괴에 관한 책을 펼쳐서 그들이 이전 목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양의 주님 앞에서 파괴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8. 내가 보니 양들의 주인이 그들에게 나아와서 그의 손에 진노의 지팡이를 들고 땅을 치시니 땅이 갈라지고 하늘의 모든 짐승과 모든 새가 그 양들 가운데서 떨어져 땅속으로 삼켜져 땅이 그들을 덮더라.
19. 내가 보니 큰 칼이 양 떼에게 주어지니 양 떼가 들짐승들을 쳐 죽이려고 나아가니 하늘의 모든 짐승과 새들이 그 앞에서 도망쳤다.

20-27 장. 타락한 천사들과 목자들과 배교자들에 대한 심판.

20. 내가 보니 아름다운 땅에 보좌가 세워지고 양들의 주인이 그 위에 앉으셨으며, 다른 이들은 봉인된 책들을 가져다가 양들의 주인 앞에서 열었더라.
21.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일곱 흰 별이라 부르시고, 길을 인도하는 첫째 별부터 시작하여 그 음부가 말의 음부와 같은 모든 별들을 자기 앞에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니, 그들이 그 모든 별들을 자기 앞에 데려왔습니다.
22. 그리고 그분은 자기 앞에 글을 쓴 그 사람, 곧 일곱 흰 사람 중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양 떼를 넘겨준 목자 일흔 명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자기 권한으로 내가 명령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죽였다."
23. 보라, 내가 보니 그들은 모두 결박되어 그분 앞에 서 있었다.
24. 심판이 먼저 별들 위에서 행해졌는데, 그들은 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 정죄의 장소로 가서 불과 불기둥으로 가득 찬 심연에 던져졌습니다.
25. 그 일흔 명의 목자들은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 불타는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26. 그때에 내가 보니 땅 가운데에 불이 가득한 깊은 구덩이가 열려 있었는데, 사람들이 눈먼 양들을 데려와서 심판을 받고 죄가 있다고 판명되어 그 불타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타 죽었습니다. 그 구덩이는 그 집의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27. 그리고 나는 그 양들이 불타는 것을 보았고 그 뼈들도 불타는 것을 보았다.

28-38 절. 새 예루살렘, 살아남은 이방인들의 회심, 의인들의 부활, 메시아.

28. 그리고 나는 그들이 그 낡은 집을 허물어뜨리는 것을 보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모든 기둥과 들보와 장식품들을 모두 함께 허물어뜨렸고, 그 집을 옮겨 땅 남쪽의 한 곳에 놓았습니다.
29. 내가 보니 양들의 주인이 이전 집보다 더 크고 높은 새 집을 가져다가 맥주 창고가 있던 이전 집에 세우셨는데, 그 기둥들은 모두 새것이고 장식들도 이전 집의

것보다 더 크고 새로웠으며, 모든 양들이 그 안에 있었다.
30. 그리고 내가 보니 남은 모든 양과 땅 위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가 그 양들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간구하며 모든 일에 순종하더라.
31. 그 후에 흰옷을 입은 세 사람이 전에 나를 붙잡았던 내 손을 잡고, 또 그 숫양의 손도 나를 붙잡아, 나를 데리고 가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양 떼 가운데에 내려놓았습니다.
32. 그 양들은 모두 희었고, 털은 풍성하고 깨끗했습니다.
33. 그리고 멸망하고 흩어졌던 모든 것들과 들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들이 그 집에 모였으니, 양들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그들이 모두 선하고 그분의 집으로 돌아왔음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34. 내가 보니 그들이 양들에게 주었던 칼을 내려놓고 집으로 다시 가져와서 주님 앞에서 봉인하고 모든 양들을 그 집으로 초대했으나 그 집은 양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했다.
35. 그리하여 그들의 눈이 모두 열려 선을 보게 되었고, 보지 못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36. 내가 보니 그 집은 크고 넓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37. 내가 보니 흰 황소가 태어났는데 뿔이 크고 들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가 그를 두려워하며 항상 그에게 간청하더라.
38. 내가 보니 그들의 모든 세대가 변화되어 다 흰 황소가 되었더라. 그 중 맏아들은 어린 양이 되었고, 그 어린 양은 큰 짐승이 되어 머리에 크고 검은 뿔이 났더라. 양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황소와 모든 소를 기뻐하셨더라. 39.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그 모든 것을 보았더라.
40. 이것은 내가 잠자는 동안 본 환상입니다. 내가 깨어나서 의로우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41. 그때 나는 큰 통곡하여 눈물을 흘렸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내가 본 것 때문에 눈물이 쏟아졌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며, 사람의 모든 행위가 그 순서대로 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42. 그날 밤 나는 첫 번째 꿈이 생각났고, 그 꿈 때문에 울고 괴로워했다. 내가 그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다.

제 91 장

1. '이제 내 아들 므두셀라야, 네 모든 형제들을 내게로 불러 모으고, 네 어머니의 모든 아들들을 내게로 모으라. 이는 말씀이 나를 부르시고 성령이 내게 부어졌으니,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일어날 모든 일을 보여주려 함이라.'
2. 그러자 므두셀라는 가서 그의 모든 형제들을 불러 모으고 그의 친척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3. 그리고 그가 의로운 모든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녹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내 입의 음성에 순종하라.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의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행하라.' 하시니라.
4. 두 마음으로 의에 가까이 가지 말고, 두 마음을 가진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내 아들들아, 의로 행하라. 그리하면 의가 너희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요, 의가 너희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5. 내가 아노니 땅 위에 폭력이 성행하고 큰 징벌이 임하며 모든 불의가 사라질 것이라. 참으로 불의는 뿌리째 잘리고 그 온 구조가 파괴될 것이라.
6. 그리고 불의가 다시 땅 위에 만연하고, 모든 불의한 행위와 폭력이 극에 달하며, 범죄가 두 배로 성행할 것이다.
7. 죄와 불의와 신성모독과 온갖 폭력과 배교와 범죄와 더러움이 성행할 때에, 하늘로부터 큰 징벌이 이 모든 것에 임할 것이며, 거룩하신 주님께서 진노와 징벌로 땅 위에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8. 그 날에는 폭력이 그 뿌리째 잘리고, 불의와 속임수의 뿌리도 뿌리째 잘려나가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9. 이방인의 모든 우상은 버려지고, 신전들은 불에 타 없어지며, 온 땅에서 제거될 것이며, 불의 심판에 던져져 영원히 진노와 무서운 심판 가운데 멸망할 것이다.
10. 의인들은 잠에서 깨어나고, 지혜가 생겨나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11. 그 후에는 불의의 뿌리가 잘리고 죄인들은 칼에 의해 멸망할 것이며... 모든 곳에서 신성모독하는 자들은 끊어지고 폭력을 꾀하는 자들과 신성모독을 행하는 자들은 칼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12. 그 후에는 또 다른 주간, 곧 의의 주간이 있을 것이니, 그 주간에 칼이 주어져서 압제자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이 행해지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13. 그리고 그 끝에 그들은 그들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집을 얻게 될 것이며, 위대한 왕을 위하여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14. 그리고 모든 인류는 의로운 길을 바라볼 것이다. 그 후 아홉째 주에 의로운 심판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이며, 모든 악인의 행위는 온 땅에서 사라지고, 세상은 멸망을 위해 기록될 것이다.
15. 그리고 그 후 열 번째 주간 일곱 번째 부분에 큰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 심판에서 그분은 천사들 가운데서 복수를 행하실 것이다.
16. 첫째 하늘은 사라지고 없어지며, 새 하늘이 나타나고, 하늘의 모든 권능이 일곱 배의 빛을 발할 것이다.
17. 그 후에는 영원토록 셀 수 없이 많은 주가 있을 것이며, 모든 사람이 선과 의로움 가운데 있을 것이며, 죄는 영원히 다시는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
18. 이제 내가 너희 아들들에게 말하고 의로운 길과 폭력의 길을 보여주겠다. 내가 다시 그 길들을 너희에게 보여주어 장차 일어날 일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19. 이제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의의 길을 걸으며 폭력의 길을 걷지 말라. 불의의 길을 걷는 자는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제 92 장

1. 에녹이 쓴 책—에녹은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이 완전한 지혜의 교리를 기록했으며, 이는 땅 위에 거할 나의 모든 자녀를 위한, 온 땅의 심판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가 정직과 평화를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2. 때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께서 모든 일에 날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3. 의인은 잠에서 깨어나 의의 길을 걸을 것이요, 그의 모든 행실과 생활은 영원한 선과 은혜로 가득할 것이다.
4. 그분은 의로운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한 의로움을 주시며,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선함과 의로움을 갖추게 하시리니, 그는 영원한 빛 가운데서 행할 것이다.
5. 죄는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사라지고, 그날 이후로는 영원히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제 93 장

1. 그 후 에녹은 책을 주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에녹이 말했습니다. '의로운 자녀들과 세상의 택함 받은 자들, 그리고 정직의 나무에 관하여 내가 말하겠노라. 참으로 나 에녹이 너희 아들들에게 이것들을 선포하겠노라.'
2. 하늘의 환상에서 내게 나타난 것과, 거룩한 천사들의 말씀을 통해 내가 알게 된 것, 그리고 하늘의 석판에서 배운 것에 따라.'
3. 그리고 에녹은 책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여 말했습니다. '나는 심판과 의가 아직 존재하던 첫째 주, 일곱째 날에 태어났습니다.'
4. 그리고 내 뒤 둘째 주에 큰 악이 일어나고 속임수가 생겨날 것이며, 그 가운데 첫째 끝이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 후에 불의가 자라날 것이며, 죄인들을 위한 율법이 제정될 것이다.
5. 그리고 그 후 셋째 주가 끝날 무렵에 한 사람이 의로운 심판의 나무로 택임될 것이며, 그의 후손은 영원토록 의의 나무가 될 것이다.
6. 그리고 그 후 넷째 주 끝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의 환상이 나타날 것이며, 모든 세대를 위한 율법과 그들을 위한 울타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7. 그리고 그 후 다섯째 주 끝에 영광과 통치의 집이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8. 그 후 여섯째 주에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이 눈이 멀게 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혜를 버릴 것이다. 그 주에 한 사람이 왕위에 오를 것이며, 그 주 끝에는 통치의 집이 불에 탈 것이며, 택함받은 뿌리의 모든 자손이 흩어질 것이다.
9. 그 후 일곱째 주에 배교한 세대가 일어날 것이요, 그 행위가 많을 것이요, 그 모든 행위가 배교할 것이라.
10. 그리고 그 끝에는 선택받은 자들이, 영원한 의의 나무에서 나온 의인들이, 그분의 모든 창조물에 관한 일곱 가지 교훈을 받게 될 것이다.
11.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거룩하신 분의 음성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늘의 모든 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12. 그렇다면 누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늘의 일들을 이해하고, 영혼이나 영을 보고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올라가서 그들의 모든 최후를 보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처럼 행할 수 있겠습니까?
13.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땅의 너비와 길이를 알 수 있으며, 그 모든 것의 크기를 누구에게 보여주었겠습니까?
14. 혹은 누가 하늘의 길이와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 별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모든 광명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겠는가?

제 94 장

1. 이제 내가 너희 아들들에게 이르노니, 의를 사랑하고 그 길을 따라 행하라. 의의 길은 마땅히 받아들여질 것이요, 불의의 길은 갑자기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니라.
2. 그리고 어떤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폭력과 죽음의 길이 드러나리니, 그들은 그 길에서 멀리 떨어져서 따르지 아니하리라.
3. 이제 내가 의인들에게 이르노니 악의 길이나 사망의 길로 행하지 말라. 그것들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4. 그러므로 너희는 의와 택함 받은 생명을 구하고 택하라. 평화의 길을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형통하리라.
5. 내 말을 너희 마음의 생각에 굳게 간직하고,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라.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죄인들이 사람들을 유혹하여 지혜를 악한 방법으로 이용하려 함이니, 그리하여 지혜가 설 자리가 없게 하고 온갖 유혹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6. 불의와 압제를 쌓고 속임수를 기초로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갑자기 무너질 것이며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7. 죄로 집을 짓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기초가 무너질 것이며,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심판 날에 금과 은을 얻는 자들 또한 갑자기 멸망할 것이다.
8. 부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재물을 의지하였으니, 너희가 재물에서 떠나갈 것이니라. 너희가 부유했던 날에 지극히 높으신 이를 기억하지 아니하였음이라.
9. 너희는 신성모독과 불의를 행하였고, 도살의 날과 어둠의 날과 큰 심판의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느니라.
10.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선포하노니, 너희를 창조하신 이가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며, 너희의 몰락에 대하여는 자비가 없을 것이요, 너희의 창조주는 너희의 멸망을 기뻐하실 것이다.
11. 그 날에 너희 의인들은 죄인들과 불경건한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제 95 장

1. 오, 내 눈이 물구름 같았으면 좋겠네, 그러면 너를 위해 울고, 내 눈물을 물구름처럼 쏟아부을 수 있을 텐데, 그리하여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2. 누가 너희에게 비방과 악행을 저지르도록 허락했느냐? 그러므로 심판이 너희 죄인들에게 임할 것이다.
3. 의인들아, 죄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다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4. 돌이킬 수 없는 저주를 퍼붓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죄 때문에 치유가 너희에게서 멀리 있을 것이다.
5. 네 이웃에게 악으로 보복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행위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6. 거짓 증인들과 불의를 판단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갑자기 멸망할 것이다.
7. 너희 죄인들아, 너희가 의인들을 박해하는구나. 너희는 불의 때문에 넘겨지고 박해받을 것이며, 그 멍에가 너희 위에 무겁게 씌워질 것이다.

제 96 장

1. 의인들아, 소망을 가져라. 죄인들이 너희 앞에서 갑자기 멸망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뜻대로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2. 죄인들의 환난 날에 너희 자녀들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 너희 둥지는 독수리보다 더 높을 것이며, 너희는 땅의 틈새와 바위 틈에 들어가 불의한 자들 앞에서 영원히 숨어 지낼 것이며, 너희 때문에 세이렌들이 탄식하며 울 것이다.
3. 그러므로 고난당한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치유가 너희의 몫이 될 것이며, 밝은 빛이 너희를 비추고, 하늘에서 안식의 음성이 들려올 것이다.
4. 너희 죄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의 부유함이 너희를 의인처럼 보이게 하지만, 너희 마음은 너희가 죄인임을 드러내고, 이 사실이 너희의 악행을 기념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5. 가장 좋은 밀을 게걸스럽게 먹어치우고, 큰 잔에 포도주를 가득 따라 마시며, 힘으로 천한 자들을 짓밟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6. 모든 샘에서 물을 마시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갑자기 소멸되어 말라 버릴 것이니, 이는 너희가 생명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이니라.
7.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모독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것은 너희에게 악의 표징이 될 것이다.
8. 너희 강대한 자들아, 너희가 힘으로 의인을 억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의 멸망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에는 의인에게 많은 좋은 날들이 올 것이다. 곧 너희의 심판 날에 말이다.

제 97 장

1. 의인들아, 죄인들이 수치를 당하고 불의한 날에 멸망할 것을 믿으라.
2. 너희 죄인들아,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너희의 멸망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천사들이 너희의 멸망을 기뻐한다는 것을 알라.
3. 너희 죄인들아, 심판 날에 의인들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에 너희는 무엇을 하겠으며 어디로 도망하겠느냐?
4. 너희는 이 말씀이 증거가 될 자들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는 죄인들의 동료였다."
5. 그 날에는 의인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리니 너희에게 심판의 날이 오리라.
6. 너희의 모든 불의한 말이 거룩하신 분 앞에서 낭독될 것이며, 너희 얼굴은 수치로 뒤덮일 것이며, 그분은 불의에 기초한 모든 행위를 버리실 것이다.
7. 바다 한가운데와 육지에 사는 죄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를 기억하는 자들은 너희를 악하게 여길 것이다.
8. 불의로 은과 금을 얻고 “우리는 재물이 많아졌고,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9. 이제 우리가 계획했던 일을 행합시다. 우리가 은을 모았고, 우리 집에는 농부들이 많으며, 우리 곡식 창고는 물처럼 가득 찼습니다.
10. 참으로 너희의 거짓은 물처럼 흘러가리라. 너희의 재물은 오래가지 못하고 속히 너희에게서 떠나가리라. 너희는 모든 것을 불의로 얻었으므로 큰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제 98 장

1. 이제 내가 지혜로운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에게 맹세하노니, 너희는 세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2. 너희 남자들은 여자보다 더 많은 장신구를 하고 처녀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을 것이며, 왕권과 위엄과 권력으로, 은과 금과 자줏빛 옷으로, 화려함과 풍족함으로 물처럼 넘쳐날 것이다.
3. 그러므로 그들은 교훈과 지혜가 부족하여 그들의 소유와 함께 멸망할 것이며, 그들의 모든 영광과 위엄은 사라지고 수치와 살육과 극심한 궁핍 가운데 그들의 영혼은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질 것이다.
4. 내가 너희 죄인들에게 맹세하노니, 산이 종이 되지 못하며, 언덕이 여종의 종이 되지 못하듯이, 죄도 땅 위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큰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5.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섭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자식 없이 죽는 것이다.
6. 내가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을 두고 너희 죄인들에게 맹세하노니, 너희의 모든 악행은 하늘에 드러나고, 너희의 모든 압제 행위는 하나도 감춰지거나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7. 그러므로 너희는 영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마음으로 말하지도 말라. 너희는 알지 못한다거나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모든 죄는 날마다 하늘에 기록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8.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억압이 심판의 날까지 날마다 기록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9.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멸망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들을 거스르는 자들이므로 너희에게 좋은 몫이 없을 것이다.
10. 이제 너희는 멸망의 날을 위해 준비되었음을 알라. 그러므로 너희 죄인들아, 살기를 바라지 말라. 너희는 떠나서 죽을 것이다. 너희는 구원을 알지 못하며, 큰 심판의 날, 곧 환난과 너희 영혼이 큰 수치를 당할 날을 위해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11. 악을 행하고 피를 먹는 마음이 완고한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할 좋은 것이 어디서 있느냐?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 땅에 풍성히 주신 모든 좋은 것에서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12. 불의한 행위를 사랑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어찌하여 너희가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느냐? 너희는 의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이 너희의 목을 베어 죽이고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을 알라.
13. 의인의 환난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를 위하여 무덤이 파이지 않을 것이다.
14. 의인의 말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는 생명의 소망이 없을 것이다.
15. 거짓되고 불경건한 말을 기록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사람들이 듣고 이웃에게 불경건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 거짓말을 기록하기 때문이다.
16. 그러므로 그들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제 99 장

1. 불경건을 행하고 거짓말을 자랑하며 그것을 칭송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멸망할 것이며 행복한 삶은 너희에게 없을 것이다.
2. 의로운 말씀을 왜곡하고 영원한 율법을 어기며 본래의 모습이 아닌 죄인으로 변모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땅 위에 짓밟힐 것이다.
3. 그 날에 의인들아, 너희는 기도를 기념으로 올리고 천사들 앞에 증거로 삼을 준비를 하라. 그리하여 천사들이 죄인들의 죄를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 기념으로 삼게 하라.
4. 그 날에 민족들이 소란스러워지고, 멸망의 날에 민족들의 족속이 일어날 것이다.
5. 그 날에 가난한 자들이 나가서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가 버리고, 그 자식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젖먹이 어린 자식들까지 버리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사랑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6. 그리고 다시 내가 너희 죄인들에게 맹세하노니, 죄는 끊임없는 유혈 사태가 일어날 날을 위해 예비되었다.
7. 돌과 금과 은과 나무와 돌과 진흙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더러운 영과 악령과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것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다.
8. 그들은 마음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 것이며, 마음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게 될 것이며, 꿈속의 환상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게 될 것이다.
9.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모든 행위가 거짓으로 이루어졌으며, 돌을 숭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다.
10. 그러나 그 날에는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길을 지키고 그분의 의로운 길을 걸으며 악인들과 함께 악인이 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11. 이웃에게 악을 퍼뜨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스올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12. 속이고 거짓된 잣대를 세우는 자들과 땅에 쓴맛을 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13. 너희는 다른 사람의 수고로 집을 짓고, 그 건축 자재가 모두 죄악의 벽돌과 돌이기에,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14.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원한 유산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15. 불의를 행하고 압제를 도우며 큰 심판의 날까지 이웃을 죽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16. 그분께서 너희의 영광을 무너뜨리시고 너희 마음에 고통을 주시며 맹렬한 진노를 일으키셔서 너희를 모두 칼로 멸하실 것이며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이 너희의 죄를 기억할 것이다.

제 100 장

1. 그 날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곳에 모여 죽고, 형제들이 서로 죽임을 당하여 강물이 그들의 피로 흐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2. 사람이 자기 아들과 손자까지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죄인은 존경받는 형제를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니, 새벽부터 해 질 때까지 서로를 죽일 것이다.
3. 그 말은 죄인들의 피에 가슴까지 잠기고, 그 병거는 그 높이까지 물에 잠길 것이다.
4. 그 날에 천사들이 은밀한 곳으로 내려와 죄를 불러온 자들을 한 곳에 모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심판 날에 일어나 죄인들 가운데 큰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5. 그리고 그분은 모든 의롭고 거룩한 자들을 위해 거룩한 천사들 중에서 수호자들을 세우시어,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리니, 마침내 모든 악과 모든 죄를 없애실

때까지 그러하시리라. 의인들이 오래 자더라도 두려워 할 것이 없으리로다.
6. 그때에 땅의 자녀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안전하게 있는 것을 보고, 이 책의 모든 말씀을 깨닫고, 그들의 재물이 죄악의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7. 너희 죄인들아, 너희는 의인을 괴롭히고 불로 태우는 자들이니, 큰 고통의 날에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행위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8. 마음이 완고하여 악을 꾀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것이며, 너희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9. 너희 죄인들아, 너희 입의 말과 너희 손으로 행한 악행 때문에 너희는 불보다 더 타오르는 맹렬한 불꽃 속에서 불타오를 것이다.
10. 이제 너희는 알라. 그분은 하늘에서 천사들을 통해,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너희의 죄에 관하여 조사하실 것이다. 이는 땅에서는 너희가 의로운 자들을 심판하기 때문이다.
11. 그리고 그분은 모든 구름과 안개와 이슬과 비를 불러 너희를 고발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들이 모두 너희 때문에 너희에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며, 너희의 죄를 기억할 것이다.
12. 이제 비가 너희에게 내리는 것을 막지 않도록 비가 내리는 것도, 이슬이 너희에게서 금과 은을 받아 내리는 것도 막지 않도록 하라.
13. 서리와 눈이 내리고 그로 인한 추위와 온갖 눈보라가 몰아치며 온갖 재앙이 닥칠 때, 그 날에는 너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제 101 장

1. 하늘의 자녀들아, 하늘을 바라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모든 일을 살피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악을 행하지 말라.
2. 만일 그분께서 너희 때문에 하늘의 창문을 닫으시고 비와 이슬이 땅에 내리지 않게 하신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3. 만일 그분께서 너희 행위 때문에 너희에게 진노를 내리시면 너희는 그분께 간구할 수 없다. 이는 너희가 그분의 의로우심을 거슬러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4. 너희는 배의 선원들이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바람에 요동치며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5.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귀한 소유물이 모두 바다에 떠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바다가 자신들을 삼켜 그 안에서 멸망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6. 온 바다와 그 모든 물과 그 모든 움직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작품이 아니냐? 그분은 그 활동에 한계를 정하시고 모래로 그 모든 곳을 둘러싸게 하지 않으셨느냐?
7. 그분의 책망을 받으시니 물고기는 두려워 말라 죽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도 죽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죽느니라. 그러나 땅 위에 있는 너희 죄인들은 그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8. 그분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생물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9. 배의 선원들이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나 죄인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 102 장

1. 그 날에 주께서 너희에게 무서운 불을 내리실 때에 너희는 어디로 도망가며 어디에서 구원을 얻겠느냐? 주께서 너희에게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2. 그리하여 모든 별들이 큰 두려움에 떨며, 온 땅이 두려워 떨며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3. 모든 천사들이 그들의 명령을 행할 것이며, 큰 영광 앞에서 자신들을 숨기려 할 것이며, 땅의 자녀들은 떨며 전율할 것이며, 너희 죄인들은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요, 너희에게는 평화가 없을 것이다.
4. 의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의롭게 죽은 자들아, 소망을 가져라.
5. 네 영혼이 슬픔으로 스올에 내려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라. 네 삶이 네 선행대로 되지 못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라. 죄인들의 심판 날과 저주와 형벌의 날을 기다리라.
6. 그러나 너희가 죽을 때에 죄인들은 너희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죽는 것처럼 의인들도 죽는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로 무슨 유익을 얻겠는가?"
7. 보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슬픔과 어둠 속에서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모두 같습니다.
8.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받으며 무엇을 영원히 보게 되겠느냐? 보라, 그들도 죽었으니 이제부터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9. 내가 너희 죄인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먹고 마시고, 강탈하고, 죄를 짓고, 사람들을 발가벗기고, 재물을 얻고, 좋은 날을 보는 것에 만족한다.
10. 너희는 의인들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보았느냐? 그들에게서는 죽을 때까지 어떤 폭력도 찾아볼 수 없느니라.
11. "그러나 그들은 멸망하여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었고, 그들의 영은 환난 가운데 스올로 내려갔다."

제 103 장

1.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의로운 여러분에게, 위대하고 존귀하고 전능하신 통치자의 영광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2. 나는 비밀을 알고 있으며, 하늘의 석판을 읽었고, 거룩한 책들을 보았으며, 그 안에 기록되고 새겨진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3. 모든 선과 기쁨과 영광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의롭게 죽은 자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으며, 너희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

요, 너희의 몫이 살아 있는 자들의 몫보다 훨씬 더 많음을 믿노라.
4. 의롭게 죽은 너희의 영은 살아서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그들의 기념은 온 세상 세대에 걸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을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그들의 모욕을 두려워하지 말라.
5. 너희 죄인들아, 너희가 죽을 때에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만일 너희가 죄악 가운데서 죽으면, 너희와 같은 자들이 너희를 두고 '죄인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날을 보았도다'라고 말할 것이다.
6. 그들은 풍요롭고 부유한 가운데 죽었고, 그들의 생애 동안 환난이나 살인을 보지 않았으며, 명예롭게 죽었고, 그들의 생애 동안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7. 너희는 그들의 영혼이 스올로 내려가게 될 것이며, 큰 환난 가운데 비참하게 될 것을 알라.
8. 너희 영혼은 어둠과 사슬과 타오르는 불꽃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곳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큰 심판은 온 세상 모든 세대를 위한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9. 살아 있는 의롭고 선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지 말라. "우리가 고난의 날에 수고하여 온갖 환난을 겪고 많은 악을 만나 소멸되었으며, 수가 줄어들고 영이 약해졌다."
10. 우리는 멸망당했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 하나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으며, 날마다 삶을 이어갈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11. 우리는 머리가 되기를 바랐으나 꼬리가 되었도다. 수고하여 애썼으나 그 수고에 만족을 얻지 못하였도다. 죄인들과 불의한 자들의 먹이가 되었고, 그들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씌웠도다.
12. 우리를 미워하고 치는 자들이 우리를 지배하였도다. 우리가 미워하는 자들에게 목을 굽혔으나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13. 우리는 그들에게서 벗어나 도망쳐 편히 쉬고 싶었으나, 그들을 피해 안전하게 도망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14. 우리가 고난 중에 통치자들에게 불평하고 우리를 삼키는 자들을 향해 부르짖었으나 그들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아니하였도다.
15. 그들은 우리를 강탈하고 잡아먹고 우리 수를 줄인 자들을 도왔으며, 그들의 압제를 숨기고, 우리를 잡아먹고 흩어지게 하고 죽인 자들의 멍에를 우리에게서 벗겨주지 않았으며, 그들의 살인을 숨기고, 우리에게 해를 끼친 것을 기억하지 않았다.

제 104 장

1. 내가 너희에게 맹세하노니, 하늘의 천사들이 위대하신 분의 영광 앞에서 너희를 선하게 기억하고, 너희의 이름이 위대하신 분의 영광 앞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2.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전에는 너희가 질병과 고난으로 수치를 당했으나, 이제는 하늘의 빛처럼 빛날 것이며, 사람들에게 보일 것이고, 하늘의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3.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심판을 구하라. 그리하면 심판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너희가 겪는 모든 환난이 통치자들과 너희를 약탈한 자들을 도운 모든 자들에게 임하리라.
4. 소망을 품으십시오.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큰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5. 너희는 무엇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큰 심판 날에 너희는 숨을 필요가 없으며 죄인으로 드러나지도 않을 것이며, 영원한 심판은 세상 모든 세대에 걸쳐 너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6. 이제 의인들아, 죄인들이 강성해지고 그들의 길에서 번성하는 것을 볼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그들의 폭력에서 멀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 군대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7. 너희 죄인들이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서 기록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은 너희의 모든 죄를 날마다 기록할 것이다.
8.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빛과 어둠, 낮과 밤이 너희의 모든 죄를 보고 있다.
9.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을 품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한 말씀을 바꾸지 말고,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의 말씀을 거짓으로 왜곡하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너희의 모든 거짓말과 모든 불경건은 의로움에 이르지 못하고 큰 죄악에 이르게 하리라.
10. 이제 나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죄인들이 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꾸고 왜곡하며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며 큰 속임수를 쓰고 그들의 말에 관한 책을 쓸 것입니다.
11. 그러나 그들이 내 말을 그들의 언어로 진실되게 기록하고, 내 말을 바꾸거나 빼지 말고, 내가 그들에 관하여 처음 증언한 모든 것을 진실되게 기록하면,
12. 그리고 나는 또 다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과 지혜로운 자들에게 책이 주어져서 기쁨과 정직과 많은 지혜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3. 그들에게 책들이 주어질 것이며, 그들은 그 책들을 믿고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책들로부터 모든 올바른 길을 배운 모든 의인들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제 105 장

1. 그 당시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땅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지혜에 관하여 증언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인도자요 온 땅을 다스리는 자들이니라.
2. 나와 내 아들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의로운 길을 걸을 것이니, 너희는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의로운 자녀들아, 기뻐하라. 아멘.

제 106 장

1. 그리고 며칠 후에 내 아들 므두셀라가 그의 아들 라멕을 위해 아내를 얻었고, 그녀는 라멕과의 사이에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2. 그의 몸은 눈처럼 희고 장미꽃처럼 붉었으며, 머리카락은 양털처럼 희고 눈은 아름다웠다. 그가 눈을 뜨자 온 집안이 해처럼 환하게 밝아졌다.
3. 그러자 그는 산파의 손에 들려 일어나 입을 열어 의로우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4. 그의 아버지 라멕은 그를 두려워하여 도망쳐 그의 아버지 므두셀라에게로 갔다.
5. 그리고 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사람과는 다르고 닮지 않은 특이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본성은 우리와 다르며 그의 눈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얼굴은 영광스럽다 하시니라
6. 그리고 내 생각에 그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천사들에게서 나온 것 같으니, 그의 시대에 땅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7. 그리고 이제, 아버지, 저는 당신께 간청하고 애원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조상 에녹에게 가셔서 그에게서 진리를 배우시도록 해 주십시오. 그의 거처는 천사들 가운데 있습니다.
8. 므두셀라가 그의 아들의 말을 듣고 땅 끝까지 내게로 왔습니다. 이는 그가 내가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로 갔습니다. 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9.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큰 근심 때문에 너에게 왔고, 불안한 환상 때문에 너에게 나아왔느니라.
10. 아버지, 이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 아들 라멕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와 같은 이는 세상에 없고, 그의 본성은 사람의 본성과 같지 않으며, 그의 피부색은 눈보다 희고 장미꽃보다 붉으며, 그의 머리카락은 흰 양털보다 희고, 그의 눈은 햇살과 같으니라. 그가 눈을 뜨자 온 집안이 환해졌느니라.
11. 그리고 그는 산파의 손에 들려 일어나 입을 열어 하늘의 주님을 찬양하였다.
12. 그의 아버지 라멕은 두려워하여 내게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는 그가 자기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지 않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온 것은 당신이 내게 진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13. 그러자 나 에녹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땅 위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니 내가 이미 환상으로 이것을 보았고 너에게 알리노니 내 아버지 야렛 시대에 하늘의 천사들 중 일부가 주의 말씀을 어겼느니라
14. 보십시오, 그들은 죄를 짓고 율법을 어기며 여자들과 합하여 죄를 짓고, 그들 중 일부는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15. 그리고 그들은 땅에서 영을 따르지 않고 육을 따르며 거인들을 낳을 것이며, 땅에는 큰 형벌이 있을 것이며, 땅은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해질 것이다.
16. 참으로 온 땅에 큰 멸망이 임할 것이며, 일 년 동안 홍수와 큰 파괴가 있을 것이다.
17. 그리고 네게서 태어난 이 아들은 땅에 남을 것이며, 그의 세 자녀도 그와 함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때에 그와 그의 아들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18. 이제 네 아들 라멕에게 새로 태어난 자가 참으로 네 아들임을 알리고 그의 이름을 노아라. 이는 그가 네게 남겨질 것이며, 그와 그의 자손들은 모든 죄와 모든 불의로 말미암아 땅에 임할 멸망에서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멸망은 그의 시대에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19. 그 후에는 땅에서 처음 일어났던 불의보다 더 큰 불의가 있을 것이다. 이는 내가 거룩한 자들의 비밀을 알기 때문이다. 주께서 내게 보여 주시고 알려주셨으며, 나는 그것들을 하늘의 석판에서 읽었다.

제 107 장

1. 그리고 내가 보니 그 위에 기록된 대로 대대로 범죄가 계속될 것이나, 의로운 세대가 일어나 범죄가 사라지고 죄가 땅에서 없어지며 온갖 선이 그 위에 임할 것이라 하셨더라.
2. 이제 내 아들아, 가서 네 아들 라멕에게 새로 태어난 이 아들이 참으로 그의 아들이며, 이는 거짓이 아니라고 알리도록 하라.
3. 므두셀라는 그의 아버지 에녹의 말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에녹은 그에게 모든 것을 비밀리에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므두셀라는 돌아와서 그 말을 아버지에게 알려주고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불렀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파괴 후에 땅을 위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108 장

1. 에녹이 그의 아들 므두셀라와 그의 뒤를 이어 마지막 날에 율법을 지킬 사람들을 위해 쓴 또 다른 책.
2. 선을 행한 너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범죄자들의 권세가 그치는 날을 기다리라.
3. 죄가 없어질 때까지 너희는 참되 기다리라.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과 거룩한 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자손은 영원히 멸망하며, 그들의 영은 죽임을 당할 것이요, 그들은 혼돈의 광야에서 부르짖으며 통곡할 것이니, 그곳에는 흙이 없기 때문이라.
4. 그리고 나는 거기서 보이지 않는 구름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께가 너무 깊어서 그 너머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밝게 타오르는 불꽃과 빛나는 산과 같은 것들이 주위를 맴돌며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5. 그리고 나와 함께 있던 거룩한 천사 중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빛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천국이 아니라 타오르는 불꽃이며, 울부짖음과 통곡과 애통과 극심한 고통의 소리일 뿐입니다.'
6. 그가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보는 이 곳은 죄인들과 신성모독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주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것, 곧 장차 일어날 일들을 왜곡하는 자들의 영이 있는 곳이다.'
7. 이는 그 중 어떤 것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니, 천사들이 그것을 읽고 죄인들과 겸손한 자들의 영혼과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여 하나님께 보응을 받은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 수치를 당한 자들에게 닥칠 일을 알게 하려 함이라.
8.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금이나 은이나 세상의 어떤 좋은 것도 사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기 몸을 고난에 내어주었다.
9. 그들은 창조된 이후로 세상의 양식을 사모하지 않고 모든 것을 덧없는 숨결과 같이 여기며 살았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많이 시험하셨으나 그들의 영이 깨끗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었느니라.
10. 내가 그들에게 예비한 모든 복을 책에 기록하였노라. 그들이 세상의 생명보다 하늘을 더 사랑한 자들이었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보상을 정해 주셨으니, 비록 악한 자들에게 짓밟히고 모욕과 욕설을 당하며 수치를 당할지라도 나를 찬양하였느니라.
11. 이제 나는 빛의 세대에 속한 선한 자들의 영을 불러 모으고, 어둠 속에서 태어난 자들, 육신으로는 그들의 충실함에 걸맞은 영예를 받지 못한 자들을 변화시키겠다.
12. 그리고 나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어 그들 각자를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히리라.
13. 그들은 영원토록 빛날 것이니 이는 의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에게 정직한 길의 처소에서 신실함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4. 그리고 그들은 어둠 속에서 태어난 자들이 어둠 속으로 인도되는 것을 볼 것이며, 의인들은 빛날 것이다.
15. 죄인들은 큰 소리로 외치며 그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것이며, 그들은 정해진 날과 시기로 그곳으로 갈 것이다.